



크루그먼 “韓, 경기부양 즉각적 조치 필요” 4



조현준 회장, 탄소섬유 시장 확대 동분서주 9

코스피(9월) 2019.55 (+10.42P)  
코스닥 625.77 (-5.38P)  
환율(달러당 원화) 1193.00 (-3.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235% (-0.030%p)

##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장관 지명 한 달 만에...

“의혹만으로 낙마, 나쁜 선례 개혁 의지 좌초돼선 안돼” 부정여론·野 반발 ‘후폭풍’ 과기부 장관 등 5명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반대여론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18면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불공정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장관에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뉴스스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신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무장관 임명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아 감옥에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민 기자 lawsdm@

## 기업·국민銀 ‘조국펀드’ 위탁관리

코링크PE가 만든 사모펀드 4개 자산보관...소규모 펀드론 이례적

은행측 “코링크PE 의뢰로 계약”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산보관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7년 10월 16일 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만든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갑’으로 명시돼 있다. ‘을’에는 김도진 행장과 수탁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8월 16일에도 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만든 그린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갑’으로 명시돼 있다. ‘을’에는 10월 계약과 마찬가지로 김 행장과 수탁부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양사는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 시절인 2016년 8월 4일에도 이 같은 절차로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

계약펀드	계약일	계약체결 은행	최종승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2017년 10월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
그린코어밸류업 1호	2017년 8월		
블루코어밸류업 1호	2016년 8월	국민은행	권선주 행장
레드코어밸류업 1호	2016년 5월		

는 국책은행이 자산 규모도 작고 신생인 코링크PE의 4개 사모펀드 중 3개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은 것이 코링크PE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은행이 조 장관 측의 자금이 해당 펀드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거대 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시중은행에 맡아 달라고 분배하는 식인데, 코링크PE처럼 작은 운용사는 맡아줄 시중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보통 10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서 경쟁 입찰도 진행되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는 은행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PE에서 계약을 맺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계약을

진행했던 것뿐”이라면서 “자본법상 PE는 반드시 신탁기관을 끼고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뤄졌던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코링크PE와 가장 먼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었다. 2016년 5월 11일 양사가 맺은 자산보관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갑’에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만든 레드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명시돼 있다. ‘을’에는 윤종규 국민은행장 이름과 수탁사업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자산을 맡아 주는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펀드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산보관위탁을 요청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 LG, 美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

LG테크놀로지벤처스 214억 규모 차세대 배터리사업 주도권 의지

LG그룹 투자회사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미국 차세대 배터리 재료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단행된 투자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미국의 배터리 재료와 공정 관련 스타트업인 ‘포지나노(forge Nano)’에 투자를 단행했다.

올 1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이 회사에 투자했고, 이번에 LG테크놀로지벤처스와 일본의 미쓰이금속-SBI 재료 혁신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총 투자 금액은 1800만 달러(약 214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포지나노는 정밀 나노 코팅 기술 업체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통해 차세대 고급 배터리 재료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포지나노가 갖춘 원자층 증착(ALD)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사이클 수명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LG그룹은 차세대 배터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달 말 그룹의 대표적 소재·부품 개발 현장인 LG화학 기술연구원을 찾아 미래 연구개발(R&D)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 등을 언급하면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사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차세대 배터리 투자에 나선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그룹 차원의 첫 투자회사다. 지난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총 4억2500만 달러를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다. 작년 11월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 및 그룹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 투자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LG화학이 최근 SK이노베이션과 미국 및 한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 간 소송전은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며,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배터리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며 “LG로서는 그룹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애플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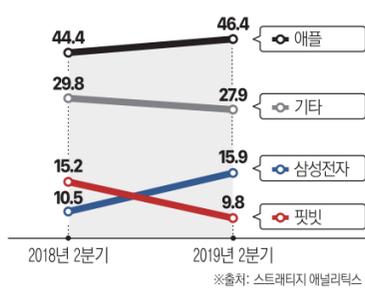
갤럭시워치 액티브2

스마트워치 판매량 1년새 44% 증가

# 삼성 vs 애플, 가을 '손목위 전쟁'

애플, 점유율 46% 압도적 1위  
'애플워치5' 앞세워 선두 굳히기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액티브2'  
전작 대비 판매량 2배 추격 속도  
핏빗·샤오미, 가성비로 시장 공략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점유율 (단위: %)



스마트워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 1위인 애플은 이번 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선두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선보이며 애플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S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 세계에서 스마트워치는 1230만 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애플은 570만 대를 판매해 46.4%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15.9%(200만 대 판매)로 2위를 차지했다. 양사 간 점유율 격차는 30.5%포인트에 달하지만 작년 2분기(33.9%포인트)보다는 3.4%포인트 줄었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갤럭시워치 액티

브2'를 출시하고 흥행몰이에 나섰다. 지난 달 30일 사전 판매에 들어간 갤럭시워치 액티브2는 사전 판매 기간에 전작 대비 2배 이상 판매량이 몰리며 인기 모델은 품귀현상이 생길 정도다.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인 2일 아쿠아블랙과 아쿠아실버 등 인기 색상의 재고 부족으로 일시 판매를 중단하다 다시 개시했다. 갤럭시워치 액티브2는 40mm와 44mm 두 가지 크기에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소재 각 3가지 색상 등 12가지 모델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부터 워치 전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현지시간 10일(한국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애플본사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고, 새 아이폰과 함께 '애플워치5'를 선보인다. 애플워치 새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수

면 추적 기능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혈압 측정 기능도 장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전 모델에서 사라졌던 세라믹 케이스 모델이 다시 부활하고, 티타늄 케이스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애플 워치 시리즈 4의 심전도 측정 및 넘어짐 감지와 같이 건강 관련 기능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브랜드들의 시장 공략도 거세다. 스마트워치 시장 3위인 핏빗은 아마존 알렉사를 내장한 '버사2'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제품은 속면상태·운동량 등을 포함한 건강정보를 수치·그래프로 제공한다.

샤오미는 3만 원대의 제품가격에 운동량·심박수 측정 등 간단한 건강관리와 문자·카카오톡 같은 알림 기능까지 갖춘 '미밴드4'를 내놨다. 한국 시장에서 출시된 지 4시간 만에 초도물량 1만 대가 모두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웨이도 '화웨이 워치 GT'로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스마트워치는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심박 센서, 피트니스용 GPS, 계보기 센서, 결제를 위해 탑재된 NFC등이 스마트워치의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이들 활용 외에도 이동통신 연결 기능 등이 스마트워치의 판매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성인 5명 중 1명 '나홀로 추석'

성인남녀 5명 중 1명이 올 추석을 혼자 보낸다. 누구와 추석을 보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8%가 '나 혼자'를 꼽았다.

9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추석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직장인 746명, 대학생, 취업생 등 성인남녀 2835명이 참여했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의 공동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혼추족' 인지를 물었다. 혼추족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추석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질문 결과 응답자의 19.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추석을 혼자 보내겠다는 응답은 여성(17.3%)보다는 남성(22.4%)에서 소폭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생이 28.0%로 혼추족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직장인(20.2%), 대학생(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여부에 따른 응답 차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미혼 응답자 중 '혼자 추석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21.3%로 기혼자(3.3%)에 비해 7배가량 응답률이 높았다.

성인남녀들이 정말로 추석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에서도 '혼자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친인척'을 앞섰다. 함께 추석을 보내고 싶은 사람(복수응답) 1위는 '부모님 등 직계가족

(43.5%)'이 차지했으며 '친구, 연인(37.0%)'이 2위에 올랐다. 3위를 '나 혼자만(28.8%)'이 차지한 가운데 '친인척'은 19.8%의 응답률을 얻어 4위에 그쳤다.

'올 추석에 친지모임에 참석할 예정 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군 중 친지모임 참석 비중은 대학생이 68.4%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가 64.1%로 나타났다. 반면 불참하겠다는 응답은 취업생(53.4%), 직장인(48.4%)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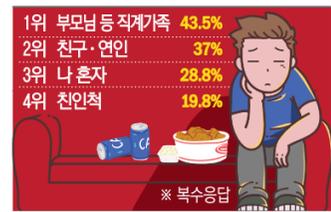
친지모임에 불참할 예정이라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친지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39.4%)'를 1위로 꼽았다. '현재 나의 상황이 자랑스럽지 못해서(26.8%)'와 '평소 왕래가 없

어서(21.5%)'가 차례로 2, 3위에 올랐다.

또 '혼자 쉬려고(21.0%)', '취업 준비, 구직활동 때문에(20.9%)', '출근해야 해서(13.4%)', '올해는 친지모임이 없을 예정이라(10.3%)' 등의 이유로 친지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들은 올 추석 명절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으로 '수면, TV시청 등 충분한 휴식(44.8%)'을 꼽았다. '가족, 친지모임(41.8%)'은 휴식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이재훈 기자 yes@

함께 추석을 보내고 싶은 사람



2835명 중 28.8% '혼추족' 미혼, 기혼 응답자보다 7배↑ 명절 함께 보낼 1위는 '부모'



언제나  
밝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 2019-1498-000900



가족의 건강이 풍성한 한가위를 완성합니다.  
베콤씨가 마음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족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 “우리는 삼성과 닮은 꼴”... 코스닥 꿀씨의 ‘IPO 허풍’

## ‘몸값 뽐내기’ 주의보

주관사 재량 따라 ‘유사기업’ 선정 매출 5300배 차 나는 곳 택하기도 80곳서 평균 130배 매출 차이 보여 이 중 48개사, 결국 공모가 ‘반토막’

코스닥 기업이 상장 당시 몸값 산정을 위해 채택하는 유사기업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한 규정 없이 주관사 재량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이 희망공모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기업을 무리하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하위 40개사(총 80개사)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유사기업으로 매출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사를 선정하고 있다.

통상 신규 상장사는 희망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이미 상장된 유사기업과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다. 상장을 담당한 주관권권사는 동종업계에서 당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회사를 선정하고 PER(주가수익비

상장일	종목명	상장 당시 매출액
2001년	디자인이	12,240
2008년	코리아에스이	2,850
2017년	카페24	97,762
2010년	이퓨처	12,341
2011년	파인텍스	59,013
2015년	케어젠	18,748
2002년	웹젠	28,787

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매출액 등을 종합해 주가를 책정한다.

유사기업으로 상장 당시 매출액의 1000배가 넘는 곳을 채택한 곳도 있었다. 9일 증가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1273위인 디자인이의 상장을 주관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공모가 선정 당시 유사회사로 삼성전자(코스피 1위)를 채택했다. 2001년 상장 당시 디자인이의 매출액은 122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출액(26조1177억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다.

한 증권사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모가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사기업 선정 등 공모가 선정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며 “매출액뿐만 아



(단위: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유사회사	당시 매출액
삼성전자	26,117,786
제룡산업	15,148,962
네이버	3,412,555
대교	860,022
서울반도체	415,468
한국콜마	268,478
엔씨소프트	154,820

나 공모가 선정 시 유리한 팩터(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를 잡아서 유사기업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에이션이 조금이라도 높은 대형 상장사들을 설정해야 상대적으로 고편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유사기업을 당사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몸값이 ‘뽐내기’ 된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와 유사기업들 간 매출액은 평균 13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최

초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80개사 중 절반이 넘는 48개사가 공모가를 평균 57.84% 하회했다.

동양증권은 코리아에스이의 공모가를 선정할 당시(2008년)에도 제룡산업(15조1489억 원)을 유사기업으로 채택했다. 당시 코리아에스이의 매출액은 28억 원에 불과했다. 카페24(네이버), 케어젠(한국콜마), 웹젠(엔씨소프트), 이퓨처(대교), 럭슬(웅진코웨이), 국일제지(한국제지) 등도 실적이 크게 차이 나는 곳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기업을 유사회사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메디톡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앨러간(Allergan, Inc)을 비교회사로 꼽았다. SKC코오롱 PI는 대만 타이플렉스(Taiflex), 일본 아리사와(Arisawa) 등 해외 기업 세 곳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가 및 매출액에 환율을 적용해 공모가를 산출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포스코 ICT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9일 증가 기준) 69.34% 떨어졌다. 국일제지(-61.20%), 하림주(-54.54%), 위메이드(-49.92%) 등도 내림폭이 컸다. 하위 기업에서는 럭슬(-97.60%), 한컴지엠디(-87.83%), 한국정밀기계(-86.84%) 등이 크게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기업 선정 시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 차이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공모가에 반영할지는 IPO를 담당하는 주관사 재량”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이 공모가 관련 선정 방식이나 모델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이디원 기자 leedw@

바이오 상장사 공모 당시 선정된 유사회사 (단위: 백만 원)

상장일	종목명	상장 당시 매출액	유사회사	당시 매출액
2019년	입타바이오	1,454	녹십자	1,334,878
2018년	신라젠	4,256	녹십자	1,197,904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	755	유한양행	1,104,651
2018년	유타렉스	287	유한양행	1,104,651
2015년	큐리언트	215	유한양행	1,017,492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유사기업 채택, 터무니없다고? 코스닥엔 비교할 기업 없었을 뿐”

“투자자, 납득할 만한 기준 원해” 바이오사 “어쩔 수 없었다” 푸념

현재 코스닥 바이오 상장사 73개(증권신고서 없는 11개사는 제외)의 경우 대부분 유한양행,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대형 제약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녹십자를 채택한 곳이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한양행(11개사), 한미약품(6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소 바이오 기업과 대형 제약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지만 상장 시 수익이나 매출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기업들이 필요하다”며 “대형사들만이 이러한 수익지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코스닥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이 매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제시하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결국 대형사와 비교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약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가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사기업 선정 방식으로 바이오주를 둘러싼 거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셀리드의 경우 2016~2018년 매출액이 전무했지만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유사기업으로 유한양행을 선정했다.

상장 당시(2018년) 유한양행의 매출액은 1조1046억 원이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는 올리스(NH투자증권)도 녹십자를 유사기업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장한 파맵신도 매출액은 2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증권당(4558억 원)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팬젠(16억 원)은 셀트리온(2656억 원), 애플론(15억 원)은 한미약품(2335억 원)을 채택했다. 안트로젠, 알테오젠, 알타바이오 등 매출액이 1100억 원 미만인 곳들도 대형사들을 선택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 상장사 73개사 중 절반 이상인 40개사가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평균 36.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프론헤 H&G는 공모가 1만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9일 94.13% 하락한 58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또 진양제약(-84.34%), 아미노로직스(-83.49%), 제일바이오(-73.49%) 등도 하락폭이 크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장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비즈니스 구조가 다른 회사랑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공모가가 높고 낮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기상장 기업과의 비교인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이디원 기자 leedw@

세상을 바꾸는 금융

**깜박하기 쉬운 초중고 학교납부금!**  
(스쿨뱅킹 카드 납부)

계좌개설 無 잔액관리 無  
**더 편한 KB국민카드 자동납부!**

**최초 납부 시 5천원 캐시백** (2019.8.26~9.30)  
납부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결제계좌로 5천원 입금

\* 캐시백은 회원별 1회 지급(캐시백 이전 카드 또는 자동납부 해지 시 제외)

**대상** KB국민카드 회원 (KB국민기업, 비씨 선택카드 제외)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신청방법**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KB국민카드 자동납부 고객센터 1577-9900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본 행사는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스쿨뱅킹 카드자동납부 동의서를 미제출하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실에 동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용카드납부는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성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bcard.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카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크루그먼 “韓, 디플레 막기 위한 즉각적 조치 필요”

## ‘2019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

### “재정 통한 단기 경기부양을… 日 수출규제는 이상한 행동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있어”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그먼(사진) 교수는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KSP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주최로 열렸다.

크루그먼 교수는 “과거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홍콩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고, 경기 전망이 빠



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으므로 경기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쟁 심

화는 중국이 위기를 맞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신용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불균형이 있는 속에서 무역 분쟁 심화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며,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미·중 무역갈등 악화에 대해 “세계 2차대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라며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산업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

는 “한국은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법은 최대한 무역 분쟁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나타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성장해왔으나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전 세계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지식이전이 성장에 중요한 만큼, 초세계화가 한계에 달한 상황 속에서 지식공유를 제도화하고 정부는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 “90년대부터 기술발전, 무역의 글로벌화, 투자의 글로벌화 덕을 봤다”며 “2010년 이후로는 그러지 못하면서 과거보다 성장엔진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 김현미(오른쪽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서 이재명(다섯 번째)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연휴 때 아프면 129로 전화하세요”

### 응급실 436곳, 병원 839곳 진료… ‘명절병원’ 검색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21곳이 연휴기간에 문을 연다. 민간 병·의원은 839곳이 추석 당일에도 진료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일평균 6873곳의 의료기관이 진료·영업을 한다.

응급실은 12일부터 15일까지 521곳 모두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12일 572곳, 13일 436곳, 14일 420곳, 15일 506곳이 문을 연다. 민간 병·의원도 연휴 첫날인 12일 3428곳이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13일엔 839곳만 개원하나 14일, 15일에는 각각 1864곳, 1634곳이 진료를 한다. 약국은 12일 6753곳, 13일 1868곳, 14일 3886곳, 15일 3201곳이 문을 연다.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포털에선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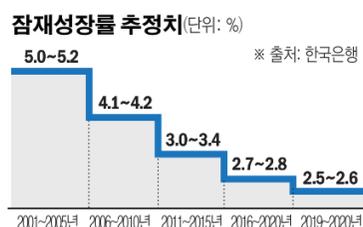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별개로 치매상담콜센터(1988-9988)도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운영한다. 콜센터에선 치매 관련 정보와 간병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상담이 제공된다. 단 치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검사는 연휴가 끝난 뒤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무료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 치매상담콜센터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세 가파르다… 구조개혁 나서야”

###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 둔화 규제 완화하고 기술혁신 필요 내년도 2.5~2.6%에 그칠듯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빠르다며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또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9일 한은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8월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 2%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2.5%에서 2.6%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마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최근 저출

산·고령화는 노동투입증가율을 낮추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반도체 수출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은 자본투입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 2010년 하반기(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한은의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가량 밑돌아 연평균 2.7~2.8%로 예상됐다. 이 중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0.7%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떨어졌다.

강태수 한은 전망모형팀장은 “최근에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쪽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GDP 기준년 개편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가량 상향조정됐지만 대부분 과거 시계열에 영향을 미친 데다, 잠재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한은의 성장률전망 하향조정 폭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기자 kimnh21c@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54.5만명 ↑

### 9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

###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단위: 억 원)



8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54만5000명 늘어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5000명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56만5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부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000명 많았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7000명(8.5%)이 늘어난 47

만3000명이었고, 지급액은 725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8억 원(17.8%) 증가했다.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10%대로 낮아졌다. 6월과 7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각각 20.8%, 30.4%였다.

고용부는 “ 그동안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의 감소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541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99명, 내달 공사나 자회사 근무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에 대해 18일까지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브리

핑에서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에 대해 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499명에 대해 18일까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10월 중 현장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고용자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한

경장비 같은 현장 조무직무가 부여된다. 올 7월 1일 신설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기로 해 공사에 직접 고용돼도 요금수납 업무를 맡을 수 없어서다. 도로공사는 또 1, 2심에 계류된 6556명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 조국 낙마 땀 국정 동력 상실 부정 여론 부담 안고 정면돌파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치명타 야 반발로 정기국회 파행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여기서 밀리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은 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법무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서 여권과 검찰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속고에 들어갔다가 '검찰개혁'을 앞세워 강공카드를 선택했다. 특히 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

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한 점과 정의당의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은 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경우 핵심 지지세력 이탈과 집권 중반기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자칫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국 후폭풍이 거세 향후 검찰개혁과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격렬한 반대로 당장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도세력의 부정적 여론과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당장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 만큼 성과를 내야만 하는 처지다.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 장관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검찰개혁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뿐 아니라 정권에도 큰 부담이다.

여론 악화는 정권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여론조사서 나타나듯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다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6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 정부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역대 최다다. 박근혜 정부는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노무현 정부 3명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임명까지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개각 단행
14일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부속서류'를 통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16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정이훈, 부동산 위장거래, 위정전입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인 용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제기
19일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논란 제기
20일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차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 제기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용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민주당,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진통 겪자 '국민 청문회' 개최 발표 -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26일	여야,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27일	검찰,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9월 1일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지시
2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담뽀 열어 12시간 가까이 진행
3일	검찰,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 여야, 9월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6일	- 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 한국당 "조국 임명, 국민 조롱한 것" 바미, 조국 퇴진행동 돌입...국조 추진

### 야당 '조국 임명'에 강력 반발

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 검토는 물론 정권 퇴진운동까지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권의 종말'을 주장하며 대(對)정부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잡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 시도이자 국민 기간, 국민 조롱"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임명 전 열린 최고위에서 "핵심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휘방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에 '탄핵', '레임덕', '정권 퇴진운동' 등을 언급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임명으로 소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



9일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여투쟁 공조 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과 함께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도 파행 가능성이 크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檢 수사 "적절" 52% vs "개혁 막는 저항" 40%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현의 더뉴스' 의뢰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

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였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였다. 이는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2.9%p 낮은 결과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 김하늬 기자 honey@

##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독자적인 AP 독자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 고열량 식이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작용

올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자음보액** | 건강한 갱년기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께  
**메타그린** | 식습관과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께  
**명작수** | 프리미엄 홍삼의 특별함을 전하고 싶은 부모님께

**제품상담 080-023-5454**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 바이탈뷰티

# “아이폰 생산공장서 중국 미성년자 노동착취” 中, 애플 신제품 발표 앞두고 ‘찬물’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북병을 만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 인권단체 ‘차이나레이버워치(CL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애플과 위탁생산업체 폭스콘이 아이폰 생산공장서 파견 근로자를 초과 고용하는 등 중국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8월 시점에 중국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의 파견 근로자 비중이 50%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노동법은 그 규모가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의 파견 근로자 가운데는 학생 인턴도 포함돼 있는데, 8월 말 기준 이들 대부분이 학교로 돌아가 비중이 3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국 노동법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CLW는 평가했다.

CLW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조사원들을 해당 공장에 투입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CLW는 2000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장난감, 신발, 전자제품 등을 납품하는 중국 공장을 상대로 근로 환경 등을 조사한다.

CLW는 보고서에서 “애플이 협력사의 근로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지만 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협력사에 전가시켜왔다”면서 “이들은 다시 중국인 노동자를 착취해 이익을 얻어왔다”고



비난했다.

애플과 폭스콘은 CLW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으나 파견 근로자의 기준 초과를 인정했다.

애플은 성명을 발표하고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파견 근로자의 기준 초과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폭스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폭스콘도 “운영 평가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뤄졌지만 이 또한 회사 가이드 라인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애플 협력업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수년간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협력사에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이들은 생산물량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왔다는 분석이다. 폭스콘의 경우, 수만 명의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 매년 연말 쇼핑시즌 주문량

을 맞춰왔다. 2017년 말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애플은 매년 근로 환경과 관련해 협력사의 책임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만4000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해 교육 여부, 불만 접수 등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루 앞두고 중국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래 아이폰 신제품은 연말 쇼핑시즌을 겨냥해 발표되고, 그만큼 사전 주문도 쏟아지는데, 하청업체들이 이번 보고서를 의식해 인력 확보 등에 차질을 빚으면 신제품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가뜰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는 애플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애플은 10일 오전 10시 본사의 스티브 잡스극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제2 서브프라임 사태’는 없다 美, 국책 모기지 銀 개혁 시동

미국 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연방주택저당공사)와 프레디맥(연방주택대출저당금고)의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는 5일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해 50개에 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계획도 이 중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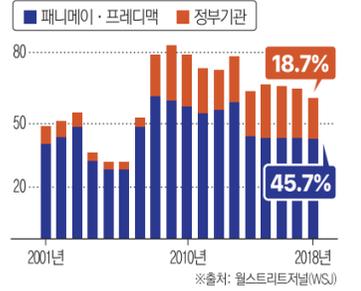
권고안은 금융위기를 촉발한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재무부는 “다른 연방 규제당국과 협력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보다 건전한 재무 상태로 두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며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축소하고 민간부문 경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직접 대출을 하지는 않지만 은행들로부터 모기지를 구매해 이를 증권화한 다음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형 모기지 증권은 두 기관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무너질 뻔했으나 워낙 존재감이 커서 혼란이 극대화할 것을 우려한 바락 오바마 전 정부가 사상 최대인 약 1900억 달러(약 22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았다.

주택시장 회복과 미국 경제 전반의 건실한 성장 속에 두 업체는 흑자전환에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패니메이·프레디맥과 정부기관 점유율 추이



성공해 2012년부터 이익을 정부에 넘겼는데 그 규모가 총 30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미 공적자금을 뛰어넘었다.

아울러 방만했던 포트폴리오도 축소하고 있다. 주택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양사의 모기지와 모기지담보증권(MBS) 포트폴리오는 각각 8000억 달러 이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양사는 자사 포트폴리오를 지난해 말까지 각각 2500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이에 양사를 규제금융 체제에서 완전히 졸업시켜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개혁을 시작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만에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재무부가 제시한 내용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규제금융 졸업에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상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약 156%, 142% 각각 폭등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5호 태풍 ‘파사이’ 日수도권 강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일본 수도권을 강타한 가운데 9일(현지시간) 오전 JR 동일본선이 일제히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인구가 밀집한 도쿄 중심 신주쿠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뿔뚝 더위 속에 열차 승강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등지에서 약 85만 가구가 정전됐고, 50대 여성이 강풍에 날아가 사망했다.

# 印尼 ‘현금 없는 사회’ 성큼

전자화폐 발행 건수, 5년 새 6.5배로 늘어

아세안 지역 최대의 경제국 인도네시아가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자화폐 발행 건수는 약 2억3000만 건으로 5년 전의 6.5배로 늘었다.

전자화폐 이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전자화폐 이용을 늘리는 추세다.

여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이나 자카

르타 지하철에서는 선불식 전자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해 전자화폐 이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자화폐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차량공유서비스업체 고젝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급성장하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고젝은 자전거 택시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서비스를 착안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교통수단인 자전거 택시 ‘오젝’처럼 가격 협상도 필요 없다.

고젝의 급성장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 방식도 바꾼다. 고젝과 제휴한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 소매 잡화점인 ‘워영’은 식료품과 간단한 요리를 파는 곳이었지만 ‘스마트 워영’으로 탈바꿈한 뒤에는 무료 와이파이 사용은 물론, 스마트폰 충전과 전자결제도 가능해졌다.

김서영 기자 0jung2@



트럼프 트윗 보면 ‘채권시장’ 보인다?

# JP모건 ‘볼피피 지수’ 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빈도가 높아지면서 유동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JP모건체이스는 트럼프의 트윗이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볼피피 지수(Volfefe Index)’를 개발했다고 8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잦은 트윗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볼피피’라는 단어는 ‘변동성(Volatility)’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말 트위터에서 썼던 정체불명의 명사인 ‘코브피피(Covfefe)’를 합성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해당 트윗에서 “늘 부정적인 언론의 ‘코브피피’에도”라고 써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냈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보도(Coverage)’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오타를 낸 것으로 추측했다.

‘볼피피 지수’는 2년물과 5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내재 변동성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중 많은 부분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무역간장에 집중돼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트윗이) 단기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연준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수는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트윗을 날리고 있다.

트럼프의 트윗은 일반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2시에 나오며 특히 오후 1시에 나올 가능성은 다른 오후 시간대나 저녁보다 세 배 높았다. 또 트럼프의 오전 3시 트윗은 오후 3시보다 더 빈번하게 나와 미국 채권시장에 골칫거리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오전 5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트윗을 거의 작성하지 않아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2019년 하반기 첨단기술 지능 테스트

제2교시

## SK하이닉스 영역

난이도 : 中

상생협력 형

1,000개 이상의 협력사와 기술을 공유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SK하이닉스 직원과 협력사 직원 총 8명이 함께 회의를 하다가 피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pizza는 일반적인 형태의 원형이 아닌 정육각형.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육각형의 피자를 협력사 직원들과 똑같이 8등분 해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뉘었을까요?



SK하이닉스는 1,000개 이상의 협력사와 기술을 공유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SK하이닉스 직원과 협력사 직원 총 8명이 함께 회의를 하다가 피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pizza는 일반적인 형태의 원형이 아닌 정육각형.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육각형의 피자를 협력사 직원들과 똑같이 8등분 해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뉘었을까요?



# 차기 '수은 행장' 인선 본격화... 내부 의견수렴 착수

노조, 내부 목소리 반영 차원  
전직원 '바람직한 기관장' 설문

조국 정국에 인사 정리 지원  
유광열·최희남 등 하마평 올라  
"늦어도 이달 말 윤곽 나올 듯"



유광열 금융위원 수석부위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식 임명되면서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인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은 노조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기 행장 선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은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린 직후 수은 노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기관장 상'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늘 외부에서 행장이 오기 때문에 직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수렴을 마치고 기재부, 청와대 등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정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따로 없어 '깜깜이' 인사로 통한다. 그만큼 매년 은행장 인사 때마다 잡음이 일기도 했다. 수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수은이 관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차기 행장에 대해서는 수은 내·외부에서 하마평만이 무성하다. 현재 기재부 출신으로 국제금융 쪽에서 경력을 쌓은 유광열 금융위원 수석부위원장(29회)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29회)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딱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길어지면서 아직 인사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 승진할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냐는 말이 나올 만큼 아직 윤곽이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수은 관계자는 "외부보다 오히려 수은 내부 사람들이 깜깜이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은 노조 관계자도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유력 후보는 없다"며 "후보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스터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입은행 설립 이후 3명을 제외하면 은행장 16명이 모두 관료 출신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사실상 외부에서 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차기 행장 인물이 '오리무중'인 것과 별개로 앞으로 금융권에서 연쇄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위원 수석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연쇄 자리 이동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돈다"면서도 "이것도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 “혁신·포용 초점...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日규제 피해기업 차질없이 지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추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대내외에 악재가 산적한 만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뒤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 방향과 관련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분할상환과 고금리 대출로 전환해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평한 고통 분담 원칙을 견지하며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육성

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금융정책인 혁신성장과 포용금융 역시 지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미래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불안전판매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호 시스템 선진화와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금 손실 논란이 불거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 관련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관련 제도를 살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메리츠화재, 이직정보 공개 반대 '배수진'

금융 인사이트

손보協 분과위 정례회의서  
삼성 수수로 개편 논란 재점화  
메리츠 "억울하다" 홀로 거부  
업계 "정보 공개 왜 반대하나"



삼성화재의 수수료 개편 시도로 촉발된 리크루팅(신규설계사 도입)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선 차리리 '설계사 이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메리츠화재만 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분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각사 임원이 참석한 자리에선 최근 논란이 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매운동 경고'가 주요 쟁점이 됐다. 사실상 GA의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데 대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내 탓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앞서 삼성화재는 신입 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계획했지만, GA의 반발로 개편 작업 일부를 철회했다. GA업계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간 설계사 빼가기 경쟁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폈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부터 전속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삼성화재의 수수료 개편으로 논란이 재점화돼 불똥이 튀었다는 주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도입 설계사의 70%는 신입 설계사이며, GA로부터 유입된 설계사는 월 20~30명뿐이라 GA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이미 제

출했지만, 업계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삼성화재는 업계의 설계사 유치 경쟁을 촉발시킨 근원지는 메리츠화재이며, 메리츠화재가 유입한 GA설계사 규모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삼성화재는 이날 회의에서 "차리리 설계사 이동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계사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로 옮겨갔는지 업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손보사들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메리츠화재만 반대의사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설계사의 이동 통계에 대해서 공유하는 건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내부 검토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 설계사 및 사용자 이동 통계만 오픈하면 메리츠화재의 주장이 사실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주장이 맞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진옥동 "印尼, 동남아 스타트업 허브 도약 전폭 지원"

신한銀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원장이 참석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업인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관계자도 배석했다.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는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자카르타 쿠닝간의 코파이브(Cohive) 본사 12층에 약 40여 명이 상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스페이스와 70여 명이 동시에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계단형 타운홀 및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금융은 8월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1기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퓨처스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티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전조영 공사, COHIVE 최재유 공동대표. 사진제공 신한금융

최종 선발했으며, 현지 스타트업 3개사도 선발해 육성 및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파이브는 사무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신한금융은 이 회사와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발굴, 육성에 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진 행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손 부위원장은 "퓨처스랩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교류 프로그램"이라며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해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저축銀도 '카톡' 송금... 'SB톡톡 플러스' 앱 출시

66개 저축은행 통합 모바일 앱 'SB톡톡 플러스'가 9일 출시됐다. 앱을 통해 예·적금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신청 등 기본 은행 업무와 함께 카카오톡 계좌 이체, 간편인증까지 가능해 저축은행 영업권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강당에서 저축은행 디지털뱅킹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고객 편의성이 개편된 차세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기쁘다"며 "핀테크 기업이나 인터넷 전문은

행 등 새 플레이어의 등장은 금융사 IT서비스에 새 패러다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에 모바일 강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 10개월간 디지털뱅킹 시스템 개발에 노력했다"며 앱 활성화를 기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앱을 통해 지역 기반에 한정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한계를 해소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4시간 365

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B톡톡 플러스를 통한 카카오톡 계좌 이체 시연회도 진행됐다. 카카오톡 계좌 이체는 SB톡톡 플러스 앱에서 카카오톡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 찾기를 통해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밖에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등이 탑재됐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거래량 10만 건을 기록했다"며 "하루 최대 거래량이 59만 건인 점을 고려하면 서버 증축 등은 아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車 산업 흔들리는 '노조 선거용' 파업

## 한국지엠 노조, 지도부 교체 앞두고 파업 강행 “업적 쌓으려 강경노선 선택”... 르노삼성도 내분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의 내부정치 다툼이 노사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협상의 한 축인 노조가 지도부 선거나 내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며 원활한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의 전면파업은 2002년 제너럴모터스(GM)가 당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뒤 처음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5.65% 인상 △1인당 1650만 원 상당의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안은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 원에 달하는 한국지엠의 상황에 견줘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노조는 임금인상과 사측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지도부 교체를 앞둔 상황이 노조의 강경노선 설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지엠 노조 25대 지도부는 올해 말 임기를 끝낸다. 아직까지 세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10월 말부터는 지도부 선거 국면이 전개될

예정이다.

현 지도부는 지난해 2월 GM의 군산공장 폐쇄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부에서 받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임단협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일종의 업적을 남기거나, 아예 교섭을 휴임 지도부로 넘겨 비판을 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노조 지도부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 집행부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쉽사리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파업을 누가 하겠냐”며 “회사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계획을 내놓도록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에 노사가 동의한 바 있다”며 “사측은 더 이상 제시할 게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제3노조 설립을 놓고 내부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현



한국지엠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이 멈춰 있다.

연합뉴스

재 르노삼성차에는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르노삼성차 지회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이중 다수 노조인 기업노조가 대표로 회사와 교섭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선출된 기업노조 지도부는 박종규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민주노총 르노삼성차 지회를 설립한 인물로 취임 이후 강경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조합원과 갈등을 겪어왔다. 6월 진행된 '2018년 임단협' 당시

지도부는 투쟁 기조를 고집하며 파업에 들어갔지만, 노조원 절반가량이 반기를 들며 파업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사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이며 최근 직원 일부가 제3노조 설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르노삼성차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제3노조 조직분열 및 노조 와해세력 징계권'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일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연 노사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 지도부의 내부 다툼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조현준 회장, 亞 탄소섬유 고객 발굴

### 효성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 참가 자체 브랜드 '탄섬'·신기술 소개

조현준 효성 회장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기 섬유를 비활성 기체 속에서 가열·탄화해 만든 탄소섬유는 무게가 강철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것이 특징이다. 탄성,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 역시 철보다 훨씬 뛰어나다. 조 회장은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탄소섬유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를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 적극 육성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박람회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 2019)'에 참가, 자사의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전선심재, 수소차용 고압용기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며 효성의 기술력과 품질을 홍보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 거래선 발굴에 나섰다.

조 회장은 이번 전시회 이외에도 탄소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 2019'의 효성첨단소재 부스 전경. 사진제공 효성

섬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그는 “탄소섬유 후방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수소 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TOP3 탄소섬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효성은 총 1조 원을 투입, 생산능력을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8년 증설을 완료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재 11위에서 3위로 강종 뛰어오를 전망이다. 6월 말에는 세계 최대 종합석유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탄소섬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yun@

### 기아차, 이마트 21곳서 급속 충전

기아자동차가 이마트, 에스트래픽과 손잡고 '전기차 우선 충전서비스'에 나선다.

9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기차 우선 충전서비스'는 기아차의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들이 전국 이마트 주요 지점에 설치된 초급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충전 지원 서비스다. 충전소 탐색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는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아차의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은 충전파트너사인 에스트래픽의 애플리케이션 'EVRO'의 '기아자동차 라운지'를 통해 전국 이마트 21개소에 설치된 27기의 초급속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인증·간편결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충전기 사용을 예약할 경우 예약 시간으로부터 10분 내 도착 시 초급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 OCI-현대車, 전기차 폐배터리 ESS 재활용

### 양사 '사업성 검증' 업무협약 韓·美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

OCI와 현대차가 손을잡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에 나선다.

OCI의 태양광발전용 ESS에 현대차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적용해 분산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OCI와 현대자동차는 9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실증 및 분산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및 북미지역의 분산형 발전시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는 ESS로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OCI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7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와 미국 텍사스주에 자리한 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증사이트로 제공하고, 전력변환장치(PCS) 공급과 설치

공사를 맡는다.

현대차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의 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양사는 연계 시스템의 운영 및 실증 운전 분석을 통한 사업성 검증은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OCI는 태양광발전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3위로, 2012년 태양광발전사업에 본격 진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다. 지금까지 OCI는 미국, 중국, 한국 등에 총 69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군산에 51MWh 규모의 ESS를 설치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독일의 센트럴인버터 제조회사인 '카코뉴에너지'의 영업양수를 통해 기존 영위하던 태양광발전사업 솔루션에 이어 인버터, 파워 컨디션 시스템(PCS) 등 ESS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두산중, 1200억 규모 인니 발전설비 계약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T. PLN과 '팔루(Palu)3' 화력발전소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1200억 원이다.

팔루3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술라웨시섬의 신두 지역에 건설되며 총 발전용량은 110MW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순환유동층 보일러(CFB)와 터빈 등 핵심 기자재를 일괄 공급해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순환유동층보일러는 기존 석탄화력용 보일러와 달리, 지속적 순환을 통해 석탄

을 완전 연소시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이다.

저품질의 석탄도 완전 연소가 가능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은 “두산중공업은 2016년 그라티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 수주를 비롯해 올해 초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와(JAWA) 9·10호기 화력발전소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2028년까지 108.4GW로 확대되는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SK에너지 3000억 그린본드 발행

SK에너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항함량 기준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사용 범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해 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제한된다. SK에너지는 이달 18일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수요예측 이후 결정한다. 발행규모는 3000억 원으로 시작해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 그린본드 발행일은 이달 26일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유진 기자 eugene@

〈LG전자〉

# 송대현 사장 “프리미엄 가전의 가치, 공간서 나온다”



가전·가구 결합한 ‘공간가전’  
‘오브제’ 등 꾸준히 출시 계획

“日 수출규제 큰 영향 없어  
“필요시 경쟁사와 부품 협력”

LG전자가 세계 가전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비책으로 ‘공간가전’을 제시했다. 공간가전은 집안 공간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가전을 말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부품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송대현(사진) LG전자 H&A(홈플러스 이연스)사업본부장 사장은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안 모든 영역에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고객 가치를 더해주는 공간 가전 솔루션을 지속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최근 고객

을 위한 공간가전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가구와 가전을 결합해 소비자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제공하는 ‘LG 오브제(Objet)’가 대표적이다. LG 오브제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완성해준다는 콘셉트의 프라이빗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신개념 융복합 가전이다. 나무, 금속 등 실제 소재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간가전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송 사장은 “과거만 하더라도 집 안에 있는 주방, 침실 등은 정확히 구분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간들이 통합되고 연결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간가전이 어떻게 고객에게 편리성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키는 신제품 개발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사장은 “수제 맥주제조기 LG 홈브루처럼 개인

의 취향을 존중하는 개인화 가전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LG전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자신했다. 송 사장은 “생활가전의 경우,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일부 부품을 수입했다. 하지만 선행 수입을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가전 분야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의 경우) 특별히 경쟁사 부품이라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의 추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하이얼 등이 디자인, 성능 측면에서 많이 따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격차를 벌리기 위해) 프리미엄 가전이라는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 건조기 결합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베를린(독일)=한영대 기자 yeongdai@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벌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 캡처

## 현대글로벌버스 車 운반선 美 동부해안 전도

24명 승선...차량 4000대 선적

현대글로벌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이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나머지 4명은 한국시간 9일 오후 6시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대글로벌버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차량 운반선 골드레이(Golden Ray) 호(號)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

우리 외교부는 골드레이호가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체가 90도로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선박정보업체 ‘베슬 파인더’에 따르면 브런즈윅항에서 출항한 골드레이호는 9일 오후 7시께 볼티모어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볼티모어항은 브런즈윅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기준 110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배는 2017년 건조된 7만1178톤급 선박으로, 마셜제도 국적이다. 전장 199.9m, 전폭 35.4m 크기로 차량 7400여대를 수송할 수 있다. 사고 당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차량 4000여대를 선적했다.

미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작업 이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현대글로벌버스와 화물 선적사들의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통상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선체는 물론 선적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선박 사고 발생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박가액 1000억 원에 달하는 현대글로벌버스의 골드레이호는 현대해상에 선박보험을 가입했다. 다만, 선박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선박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일시적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어 대체선박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기·가전·자동차 안전보험**

고객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모든 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더 가까이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LIFEPLUS 전속모델 이병현

L I F E M E E T S L I F E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 람보르기니 디자이너, 제네시스 맡는다

페리니 상무, 유럽 디자인 총책에

제네시스가 알파 로메오, 람보르기니 등에서 디자인 개발을 주도해 온 필리포 페리니(Filippo Perini·사진) 디자이너를 유럽 제네시스 선행 디자인 스튜디오 총책임자 상무로 영입한다.

필리포 페리니 상무는 16일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에 합류해 한국의 제네시스 디자인실과 함께 선행 디자인 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신임 페리니 상무는 고급차 및 고성능 스포츠카 디자인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온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꼽힌다. 그는 1995년 알파 로메오에 입사해 스파이더, 156 슈퍼 트리스모 경주용 차 등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후 2003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아우디의 A5 쿠페, TT 콘셉트카 등의 디자인을 개발했다.



였다.

2015년부터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 기업 ‘이탈디자인(Italdesign)’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모빌리티 기업에 디자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콘셉트 디자인 등을 제공했다.

페리니 상무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혁신에 공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제네시스 디자인 팀과 함께 나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DoosanCONNECT™  
고객-장비-본사 직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입니다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10> 나눔 - 반짝 기부 대신 지속 가능성 확보**

# 가장 잘하는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과거 단순하게 금액을 지불하는 일회성 불우이웃돕기에서 벗어나 회사의 사업과 연관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나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동정’이 아닌 ‘문제 해결’ 혹은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공헌이다. 재계 관계자는 “단순히 ‘주는(Give)’ 것에서 벗어나 ‘나누는(Share)’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게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투모로우솔루션은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7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삼성투모로우솔루션 결선 워크숍에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공군으로 구성된 에이스 세이버(ACE SAVER) 팀은 전정기관을 자극해 비행 착각을 해소하는 웨어러블 장비를 제안했다. 강요한 씨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나는 데도, 조종사는 몸이 기울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이를 ‘비행 착각’이라고 한다. 이는 비행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삼성투모로우솔루션을 통해 비행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이 줄고, 조종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뤄진 퍼스트펄링(FIRST PENGUIN) 팀은 친환경 택배 상자를 제안했다. 박정환 군은 “택배 상자가 주문한 물건에 비해 유독 크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크기 조절이 가능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택배 상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는 대학생 봉사단 ‘나눔 블런티어 멤버십(Volunteer Membership)’을 운영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에서 대학생 200여 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 정기봉사(월 1회)를 직접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발견한 사회 현안을 창

‘삼성투모로우솔루션’ 공모전 반영구 택배상자 등 아이디어

LG, 저신장아 호르몬제 지원 KAI, 지역 소외아동 항공체험



‘삼성투모로우솔루션’ 결선 워크숍에서 친환경 택배 상자를 제안한 ‘퍼스트펄링’ 팀. 아래는 KAI가 후원하는 하늘사랑 어린이합창단원들이 항공 체험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 각 사

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창의 미션을 수행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안한 볼록거울 프로젝트는 전국 지하철 63개 역, 121개 승강기에 실제로 적용됐다.

루게릭병 환자의 의사 표현을 돕는 달력형 의사소통판은 현재 루게릭병 환자 가족 70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달력형 의사소통판은 스마트 AAC(의사소통 기기)로 발전해 의사 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급이 진행 중이다.

LG는 25번째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지원사업으로 저신장 아동의 키와 꿈을 키우고 있다. 저신장 아동은 성장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

우가 많다. 이를 위해 LG는 1995년부터 25년간 매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전문의들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장 아동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총 1571명을 지원해왔다.

‘유트로핀’은 LG화학이 199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장촉진 호르몬제로, 매년 ‘유트로핀’ 매출액의 1% 이상을 기부해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에 사용하는 등 LG복지재단과 LG화학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의 기부 형식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기업이 얼마를 후원하는 식이 아니라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에 직원들을 함께 참여시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철강협회가 주관하는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임직원의 걸음 수만큼 난치성 환아에게 기부하는 ‘착한 걸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 5월 빅이슈코리아에 잡지 판매용 카트 100대를 후원했고 올해 5월에는 잡지 판매원들의 하절기 티셔츠 200장과 물품 보관용 벨트백 100개를 제작·증정하기로 했다.

KAI는 2016년 구성원들이 출연한 ‘KAI 나눔봉사단’을 창단했다. 그동안 사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봉사활동을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전체 구성원들의 70% 이상이 모금에 참여했다. 회사가 위치한 사천지역의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창단한 합창단 활동을 통해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스카이 합창단(S-KAI choir)’은 KAI가 후원하는 사천시아동센터 연합 합창단이다. 9개의 아동복지시설이 함께하고 있으며 합창단원은 총 49명이다. 합창 등의 음악 활동과 문화 체험을 통해 소외계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낮은 자존감 등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이문호(왼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7월 26일 오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 오지 과학교실 여는 정밀분석기 전문 영인그룹

30명 미만 중학교 22회 방문 과학기자재 기증 등 사회공헌

43년간 정밀시험 분석기기와 관련 제품을 판매·개발해온 영인그룹(영인과학·영인랩플러스·영인크로매스·영인에스티·영인에스엔·솔루션렌탈)은 과학 기술 전문기업답게 사회공헌 활동도 과학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인그룹이 제일 잘 아는 과학기술을 사회와 나누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해 2008년부터 ‘영인사랑나눔’이 총 22차례 진행됐다. 영인사랑나눔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실, 과학실험 기자재 기증으로 이뤄진다.

과학교실은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과학기술 혜택이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오지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영인그룹 계열사 직원 20명 내외가



영인그룹은 2008년부터 ‘영인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과학교실, 실험기자재 기증 등의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영인그룹

영인사랑나눔단으로 선발돼 전체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를 방문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 있고 흥미로우면서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과학을 주제로 과학교실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영인사랑나눔은 단순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과학 기자재를 지원해준다. 밤

하늘의 별을 보고자 하는 학교에는 천체망원경을 기증했고, 동네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당도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에는 당도계를 지원했다. 이 재원은 영인그룹 임직원의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의 끝잔기금과 회사의 사회공헌 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2014년부터는 매년 여름방학 시즌인 8월에 임직원 및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영인과학교실’을 열어 부모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의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과학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인그룹은 과학 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국의 소규모 중학교를 찾아 과학교실을 개최하고, 선진 과학 기자재를 기증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및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인그룹 관계자는 “영인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건강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LG 아프리카 브랜드숍엔 무료 세탁방

대한항공, 재난지역 구호품 공수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찰 활동을 하거나 집을 세우는 등 종류도 다양하다.

LG전자는 ‘LG와 함께라면 언제나 Life’s Good’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사업장에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州)의 음보음바 마을에 위치한 LG 브랜드숍에 무료 세탁방을 열었다. 음보음바 마을의 물과 전기가 부족해 주민들이 빨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세탁방에는 최신 세탁기, 건조기 외에도 다리미, 섬유유연제 등 빨래에 필요한 용품들을 비치해놨다.

미얀마, 캄보디아 나후지역을 방문해 이동진료소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 보건 활동도 한다. 현지 주민들이 지속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혈압 및 당뇨 등 보건교육도 시행한다.

현대차는 11년 동안 세계 22개국에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

다. 파견된 봉사단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마을 공공시설 건축 및 재보수 △마을 벽화 조성 △저소득층 주택 수리 등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해외 봉사 활동은 단순히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활동은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봉사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찰리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스틸빌리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스틸빌리지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철강 소재와 건축 공법을 활용해 주택이나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설립된 주택만 20채이다.

대한항공은 수송업의 특성을 활용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적 차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와 가까운 정기 항공편을 이용해 담요 2000장 등 약 42톤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웹툰으로 배우고 AI 접목... '전화영어'는 진화 중

### 'YBM날톡' 네이버 인기웹툰 5편 회화교재 활용 젊은층 공략 '이지톡 AI 플러스' AI음성인식 기술로 통화내용 텍스트 전환 '유폰 B2B' 국내 첫 팀 제휴 방식 도입... 직장인들에 큰 호응

민병철유폰, 민트영어, YBM날톡, 튜터링 등 국내 '전화영어' 교육 브랜드가 2030 세대에 맞춘 특색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영화와 웹툰을 접목한 플랫폼 확충부터 전 세대에 걸쳐 각광을 받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24시간 서비스 등 이른바 '인싸템'으로 재정비한 전화영어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전화영어 교육업체에 따르면 민병철유폰은 직장인 제휴 전화영어 '유폰 B2B'로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유폰 B2B는 기존의 기업 대 기업 제휴 방식을 넘어, 국내 최초로 팀 제휴 방식을 도입했다. 회사 단위 제휴 체결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개별 팀 또는 부서 간 간단한 의사결정을 통해 직장인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에듀서브의 전화·화상영어 브랜드인

민트영어는 강사 평가제도, 차별화된 교육 코스 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사 평가제도는 회원이 전화영어, 화상영어 전문 강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강사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강사는 교육센터에서 다시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전화, 화상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YBM넷은 네이버 웹툰으로 만든 영어 회화앱 'YBM날톡'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YBM날톡은 '네이버 만화'에서 연재되는 인기 웹툰 5편으로 제작됐다. 유미의 세포들, 하우스전자, 펄링 러브스 메브, 평범한 8반, 달콤한 인생 등에 나오는 명대사를 영어로 보고 읽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영어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자는 웹툰을 보면서 원어민 성우가 말하는 대사를 듣고 바로 따라 하는 새도잉과

받아쓰기인 딕테이션을 거치며 중요 표현과 어휘를 익힌다.

(주)튜터링은 학생과 전 세계 튜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1대1 영어 학습을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정된 강사와 공부 가능했던 기존 교육 형태와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원하는 토픽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콜센터 없이 관리와 인력이 소요되던 비용은 줄이고, 고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마인즈에듀의 '이지톡 AI 플러스' 전화영어 역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접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어민 선생과 전화영어 수업이 끝난 후 음성인식 기술로 텍스트로 옮겨진 실제 대화 내용을 리뷰하고 잘못된 표현은 피드백받는다. (주)이티폰은 북미·필리핀 전문 전화·화상영어 교육업체로, 동종 업계보다 높은 강사 급여를 지급하는 '최고임금 지급정책'을 시행해 우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으로 불리는 필리핀 올타가스에서 A급 강사를 채용해 학습효과를 높인다.

이재훈 기자 yes@



YBM넷 'YBM날톡(위 사진)'과 마인즈에듀 'AI플러스 전화영어'. 사진제공 YBM넷·마인즈에듀



전통시장 찾은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둔 9일 대전 중리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입한 후 물건값을 치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 한상혁 취임 일성 "가짜뉴스 척결"

(방송통신위원장)

### "왜곡된 정보, 사회적 갈등 심화 국민이 공감할 대책 마련할 것" 글로벌 콘텐츠 업체 대응 강화

한상혁(사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 마디로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9일 개최했다. 한 신임위원장은 당초 예상대로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우선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왜곡된 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에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도 임시대에서까지 강조한 부분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 간 역할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KT,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 'GEPP' 라오스 출시

### 아프리카 이어 동남아로 확대

KT가 감염병 방지 프로젝트(GEPP) 서비스를 아프리카에 이어 동남아 시장까지 확대한다.

KT는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보건부,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재단과 함께 '라오스 GEPP' 출시행사를 열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라오스 GEPP는 스마트폰에 라오스 GEPP 앱을 설치한 라오스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지역, 유행 감염병 증상 및 예방

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한 국민들에게 경고를 보내 주의를 요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의심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증상을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 라오스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에서는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KT는 GEPP 외에도 라오스 보건부, 한국국제보건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ICT 역량을 활용한 라오스의 공공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정부, 내년 소·부·장 R&D에 3000억 투입

(소재·부품·장비)

### 올 2배...日 소재부품 무기화 대응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등 육성

정부가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의 2배로 늘려 잡는다. 일본 수출규제 상황에서 부품·소재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기초·원천 R&D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1600억 원이었다. 2배가량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소재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미래 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액은 4004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내년 소재·부품 연구에 특화된 연구실 60여 곳을 지정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재 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에 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에 내년 115억 원을, 연구장비 국산화에 73억 원을 투입할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주체 간 정보 개방과 공유 활성화도 속도를 낸다. 연구데이

터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2025년까지 총 4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캡리스) 대상 성능검증 공정 지원에도 2022년까지 450억 원이 들어간다.

투자효율도 제고한다. 내년 '소재혁신전략본부'(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는 11개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해 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또 기술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R&D 지원 방식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제주버스 실시간 위치 '카카오맵'서 보세요

### 위성시스템 활용 10cm 단위 표시

카카오는 모바일 지도앱 카카오맵을 통해 제주도에서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성항법시스템 'GNSS

'를 활용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카카오맵에 도입한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는 GNSS 단말기를 제주 지역 모든 제주버스에 설치해 데이터를 제

공하고, 카카오맵이 단말기와 시스템을 연동해 서비스를 개발했다. 버스의 위치 정보를 10cm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맵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와 논의·협력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과 동시에 버스 도착 정보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공공 달한 서민지갑



# '가성비'로 연다

오뚜기 '오!라면'·이마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등 유통업계 소비심리 위축 대응 초저가 제품 공들여 '로스리더' 미끼상품, 소비자 선택 폭 넓혀 집객효과 특출

다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유통업계가 잠재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4.81(2015년=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104.85) 대비 0.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상승률로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따지면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로 집계될 정도로 소비가 악화한 상황이다. KDI경제동향 9월호에 발표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95.9)보다 3.4 포인트 하락한 92.5로 감소했다. 유통·소비재 업계는 이 같은 저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리더 카드'를 속속 꺼내놓고 있다. 가성비

가 높은 제품을 출시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뚜기는 가성비를 높인 '오!라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라면'은 현재 대형마트에서 행사가로 4입 기준 1850원, 봉지당 460원 수준에 판매하고 있다. 개당 가격은 오뚜기 진라면(5입, 2750원)보다 약 90원 저렴하다. 편의점 기준 봉지당 가격은 700원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국민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2월 출시된 이마트24의 '이임e 민생라면'은 저가 라면의 대표적 사례다. 팔도와 협업한 PL(자체 라벨) 상품인 이 제품은 당초 55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지만 3개월여 만에 가격을 인하, 대형마트 기준

봉지당 390원, 5입 번들 1950원이다. 출시 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판매에 힘입어 5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라면시장은 크게 가격과 품질로 양분되는데 라면업계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가성비 좋은 제품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9월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춘 '피츠 슈퍼클리어'를 10만 캔 한정 판매한다. 이 제품의 용량은 420ml로 기존 355ml 캔 제품보다 65ml 늘었다. 반면 한 캔당 출고가격은 902원으로 기존 캔 제품보다 337원가량 더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같은 용량일 경우 맥주가 발표주보다 2배가량 비싸지만, 피츠

는 경쟁사의 발표주인 '필라이트'와 가격차가 100ml 기준으로 리츠 231원, 필라이트 209원으로 10%에 불과해 가성비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2분기 충격적인 실적 부진을 기록한 대형마트도 3분기 들어 초저가 전략에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최근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7월 매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13.7%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달 초저가 시장을 겨냥한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제품을 추가로 내놨다. 병당 4900원에 선보인 '도스콤포스 와인'은 8월 1일-9월 3일 40만 병 판매됐고, 개당 480원짜리 '다이알 비누'는 같은 기간 16만 개 팔렸다. 지난달 말 추가 출시한 100매에 700원인 물티슈는 판매 5일 만에 16만 개가 판매됐다. 2000원에 3개 묶음 구성인 치약도 5일간 판매된 전체 치약의 46%(판매량 기준)를 차지했다. 생활가전도 초저가를 앞세웠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맨 의류 건조기(3kg)'를 24만9000원, 49인치 LED TV를 37만9000원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가성비 제품은 이른바 '로스리더'라 불리는 '미끼상품'으로 제조·판매업체가 마진은 최소화하면서 손님을 끄는 집객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악의 경우 원가 이하로 팔더라도 해당 품목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객효과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소비자 생활과 밀착돼 있는 유통·소비재 업계에서 초저가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마진 축소를 감수하는 '초저가 유인상품'을 통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의 럭셔리 브랜드 '안다즈'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첫 한국 지점 '안다즈 서울 강남'을 개관했다. 전 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선 4번째로 문을 연 안다즈 서울 강남은 한국의 전통을 재해석한 멋을 살려 기존 럭셔리 호텔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안다즈 서울 강남 로비에서 2층에 위치한 다이닝 공간 '조각보'로 올라가는 계단(왼쪽)과 최고급 시설을 갖춘 펜트 하우스 내 다이닝 룸 모습.

CJ오쇼핑 플러스 가상현실 스튜디오 방송. 사진제공 CJ오쇼핑

## “럭셔리 호텔 ‘안다즈’, 격이 다른 호캉스 경험하세요”

한국 1호점, 압구정동에 오픈

“안다즈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을 지향하지만, 여기서 ‘럭셔리’란 호화스러움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전통, 압구정 지역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 ‘안다즈’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문을 열었다. 안

다즈는 전 세계 21번째, 아시아에선 4번째로 서울에 선보였다. 글로벌 호텔 그룹 하얏트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안다즈’의 후알 메르카단체 서울 강남 총지배인은 9일 오픈 기념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내 호텔을 찾은 고객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안다즈 서울 강남을 오픈하게 됐다”며 “기존 글로벌 체인 호텔과 달리 우리는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41개 객실, 5개 콘셉트를 아우른 레스토랑, 웰니스(Wellness) 공간과 맞춤형 이벤트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안다즈 서울 강남은 주중에는 비즈니스 고객을 겨냥하고, 주말에는 ‘호캉스’를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객실의 경우 1박에 30만 원 초반대이지만, 17층에 있는 2개의 톱 스위트룸은

1박에 800만~1000만 원에 달한다. 톱 스위트룸은 여유 있는 테라스 가든 공간과 바, 주방, 다이닝 공간, TV 룸 등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안다즈 서울은 그랜드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오프닝 셀러브레이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호텔 내 식음료 업장 30% 할인(단, 주류 및 룸서비스 제외), 고객 요청에 따라 오후 3시까지 체크아웃 시간 무료 연장 등 특별한 혜택을 담은 객실 패키지다. 예약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실제 투숙 가능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박미선 기자 only@

## 여행상품 방송에 등장한 가상현실

CJ오쇼핑 플러스 테스트 진행 판매목표 30% 이상 초과 달성

CJ오쇼핑이 자사의 T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플러스에서 VR 기술을 적용한 가상 스튜디오를 선보인다. VR(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CJ오쇼핑이 VR 기술을 활용해 만든 여행 방송은 스페인·포르투갈 상품으로, 추석 연휴인 13일부터 15일까지 T커머스 채널에서 방송된다.

VR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영상전환 장비가 필요하다. CJ오쇼핑은 차별화된 방송 화면 제작을 위해 올해 초 이 장비를 들여놨다. CJ오쇼핑은 7월과 8월 VR 가상 스튜디오를 적용한 여행 방송을 테스트로 진행했다. 7월에 방송한 미국 동서부 여행 상품 판매장면에는 자유의 여신상, 골든 게이트 브릿지 등의 랜드마크들이 가상의 입체적인 형태로 등장했고, 8월 베트남 나트랑 여행 방송에서도 해변, 대성당 같은 유명 관광지들이 실감나는 영상으로 제작됐다. 방송 결과 두 여행 상품 모두 목표를 30% 이상 초과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이상준 CJ 오쇼핑 Tech&Art 사업부장은 “홈쇼핑 방송 채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영상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송 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신선한 쇼핑 경험을 전달하고자 VR 방송을 시도하게 됐고 앞으로 무형 상품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내일까지 구입하면 연휴 전 선물 배송

현대백·올리브영·KGC인삼공사 등 긴급 배송 서비스

“추석선물 준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추석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긴급 배송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추석선물 배송이 마감됐지만 미처 선물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을 겨냥해 특가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점에서 10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추석 전날인 11일까지 긴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각 점포에서 선물세트를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점포별 반경 15km 내 지역까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구매고

객은 배송비(5000원)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본점, 목동점, 천호점, 신촌점 등 추석 전날(12일)까지 영업하는 6개 점포의 경우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한해 근거리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12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추석 전에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선물을 구매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정관장 제품을 당일 주문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를 10일 정오까지 실시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전국 정



관장 매장에서 배송 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되며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무료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식품 전문몰인 ‘정관장몰’을 통한 ‘매장픽업 서비스’도 유용하다. ‘매장픽업 서비스’란 정관장몰에서 정관장 주요 제품을 주문 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지역 정관장 가맹점에서 제품을 찾아

가는 서비스다. 올리브영은 연휴 전날인 11일 오후 8시 전까지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오늘드림’ 상품 구매 시 서비스 가능 지역에 한해 3시간 내 배송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11일 오후 8시 이전 주문건에 한해 3시간 내 즉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14일 오후 8시부터 추석 연휴에 일시 중단했던 ‘오늘드림’ 주문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오늘드림’ 주문이 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드림’의 선물 포장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15일까지 선물하기 좋은 대표 카테고리인 건강기능식품, 기초 및 색조 화장품, 향수, 립케어, 보디케어 상품 구매 시 옵션을 선택하면 무료로 선물 포장해 배송해준다. 유희희 기자 yhh1209@

# 호실적에도 맥 못추는 주가... '차이나 디스카운트' 여전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잇단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의 불성실공시, 상장폐지 등으로 시장 전반에 퍼진 중국기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13곳(2곳 거래정지) 중 1곳을 제외한 10곳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가가 6000원이었던 에스앤씨엔진그룹은 9일 종가 기준 90.3% 떨어진 460원을 기록 중이다. 씨케이에이치, 로스웰 등도 공모가 대비 각각 91.6%, 77% 떨어져 동전주로 전락한 상태다. 그나마 2000

중국계 기업 13곳 중 10곳 공모가 대비 하락...2곳 거래정지  
에스앤씨엔진그룹 90.3%·씨케이에이치 91.6% '곤두박질'  
"불성실공시·상장폐지 등 시장 불신 키워, 신뢰 회복 나서야"

원이라는 낮은 공모가로 코스닥에 입성한 워임푸드만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주가 반등 추이는 지지부진하다. GRT는 2일 당기 영업이익(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이 772억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올랐다고 공시했지만 이튿날 주가는 4.13% 하락했다. 형성그룹과 컬리레이, 골든센츄리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오르는 등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공시 당일에만 반짝 상승 그래프를 그렸을 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 증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분석한다. 중국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 이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호재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상장폐지 리스크는 끊이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 입성한 중국계 기업

국내상장 중국기업 (단위: 원, 9일 종가 기준)

기업명	현재 주가	공모가
워임푸드	2285	2000
에스앤씨엔진그룹	460	6000
로스웰	746	3200
형성그룹	1080	3600
골든센츄리	568	3500

24개 중 11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고, 이 중 6곳의 폐지 사유가 회계 부정과 관련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 정지된 '고삼'이 꼽힌다. 이후에도 성용광전투자, 중국원양자원, 차이나하

오란 등이 상장 폐지됐고, 현재 이스트아시아홀딩스와 차이나그레이트가 거래 정지 상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여러 사례들로 인해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성 소식을 전해도 시장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신뢰도가 올라가면 향후 유상증자·회사채 발행 등의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공시가 기업 펀더멘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국 기업들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헬릭스미스, 제약·바이오 업종 '구원투수' 될까

신약 개발 기대감 속 한 달 새 주가 20% 경풍... 시총 2위에  
전문가 "특정 종목 집중, 오히려 毒될 수도" 신중 투자 조언

헬릭스미스가 제약·바이오 '신(新)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이은 약재로 약화된 바이오·제약 업종의 투심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락을 불러온 바이오주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은 또 한 번의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시장의 관심사는 추석 이후 발표 예정인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에 쏠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제약지수는 올 들어(2019년 1월 2일~8월 30일) 25.69% 떨어졌다. 특히 코오롱티슈진

을 비롯해 신약 개발로 주목을 받던 신라젠과 에이치엘비 등이 임상 과정에서 연이어 실망스러운 결과를 쏟아낸 지난 두 달간 무려 18.12%나 하락했다.

그런데 최근 제약지수가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은 단연 헬릭스미스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간 2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며 단숨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뛰어올랐다.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23~27일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VM202-DPN)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기대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상 3상 성공 여부에 하반기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흐름이 달려있다는 전망까지 내놓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고 있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에 성공한다면 침체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헬릭스미스는 신약개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리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3상 및 신약 상용화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신

라젠의 펙사백 등 연이은 실패를 겪었다"며 "이에 제약업체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됐지만 헬릭스미스의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발표되면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약 개발 과정이 12.5년으로 2017년 대비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신약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제약·바이오주를 끌어내렸던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헬릭스미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매수주체는 개인투자자였으며 기관과 외국인 은 오히려 대거 순매도했다"며 "또다시 기대감만 앞세운 비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조국 펀드' 관련 의혹  
더블유에프엠 주가 급락  
등락 거듭하다 -17% 마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블유에프엠 주가가 급락했다.

9일 코스닥시장에서 더블유에프엠은 전일 대비 17.00% 내린 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블유에프엠 주가는 오전 9시 48분께 2010원(-20.55%)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다시 2850원(12.65%)까지 오르는 등 널뛰기 끝에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이상훈 대표이사 사임하면서 김병혁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도 맡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분부는 6일 3건의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정희 기자 ljh@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재무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전기트럭·버스... 2차전지 거래처 다각화 추진”

### CEO 인터뷰

####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

자동차 전장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기업 유니테크노가 2차전지 배터리 셀케이스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2차전지 기업으로 납품을 지속하면서 기술력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객사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9일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이사는 부산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형 2차전지 회사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배터리 셀케이스를 공급 중”이라며 “미국, 중국 업체들과 공급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 듯  
부산 신공장 美·유럽 수요 대응

유니테크노의 강점은 소형 제품을 강도 높게 성형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자동차 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해 제품 불량률이 낮은 것을 증명해 왔으며, 배터리 셀케이스도 기술적 우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특수 소재에 대한 성형 기술을 인정받아 배터리 셀케이스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다”며 “2018년부터 매

출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배터리 셀케이스에서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성장할 전망”이라며 “배터리 셀케이스만 공급하던 것에서 관련 부품까지 합쳐진 모듈 제품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향후 매출 성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테크노는 공급 주문 증가에 대비해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부산 신공장은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고 최근 설계를 마쳤다. 준공 시점은 2020년이며 신공장 2개 동 중 1개 동은 배터리 셀케이스 전용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공장 배터리 셀케이스 전용설비는 미국·유럽 대상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승용차 외에도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으로 배터리 셀케이스 공급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 최대주주 청산 5개월 남아 케이알피앤이 ‘투자주의보’

1·2대 주주 운용기간 만기 앞둬  
40% 이상 물량 쏟아질 수도

케이알피앤이(구 퍼시픽바이오)의 1·2대 주주가 각각 5개월, 11개월 후에 청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 청산될 경우 경영권 변동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케이알피앤이의 1·2대 주주는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설립 당시 청산일이 정해진 상태다. PEF란 투자받은 자본을 운용해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청산일이란 일종의 운용기간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회사는 보유한 재산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없어진다.

1대 주주인 디케이알파트너스제1호사모투자(이하 디케이알)의 청산일은 내년 2월이다. 디케이알은 케이알피앤이 지분 2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 주주인 케이티씨엔피그룹스채프2011의2호사모투자(이하 케이티씨)의 청산일은 내년 8월이다. 케이티씨는 6월 말 기준 지분을 19.19%를 보유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청산을 1년씩 2차례 연기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디케이알은 최대 출자자인 블루모빌이 다른 사업 수익이 전혀 없이 빚만 있어 분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 블루모빌의 지

케이알피앤이 주가  
(단위: 원)



분 100%를 보유한 박정원 씨는 지난해까지 케이알피앤이 임원으로 재직했다가 청산일이 1년 앞으로 다가온 1월 사임했다.

디케이알의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 GP인 디케이알파트너스가 3.66%를, LP인 블루모빌이 94.77%를 보유했다. 블루모빌은 다른 매출액 없이 디케이알에 18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사업의 전부다. 이 중 80억 원은 개인에게 빌려 투자했다. 상환을 위해서라도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케이티씨는 이미 장외매도 등을 통해 케이알피앤이 지분을 매각 중이다. 현재 남은 지분은 13.60%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디케이알과 케이티씨가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2015년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500원에 취득했다는 점이다. 청산일까지 주가가 9일 종가(867원) 수준으로만 유지돼도 4년 만에 70%가 웃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이알피앤이 관계자는 “주요 주주의 청산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GP사가 지분을 매입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 화장품 영토 확장 나선 네오팜

하반기 새 브랜드 출시... M&A 물색

네오팜이 기존 보유한 4개 화장품 브랜드에 이어 하반기 신규 브랜드 2개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주력 브랜드에 이어 온라인, 고기능성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네오팜은 기존 주력 브랜드로 아토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마비 등 4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9일 “온라인 전용 브랜드, 고기능성 시니어 맞춤 브랜드 등 2개의 신규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규 브랜드 출시에 이어 기존 주력 브랜드에서 신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인수·합병(M&A)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5월 네오팜은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최대주주인 잇츠한불을 대상으로 32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2분기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4억 원, 유상증자로 인한 단기금융자산 722억 원을 보유해 M&A를 위한 자금은 충분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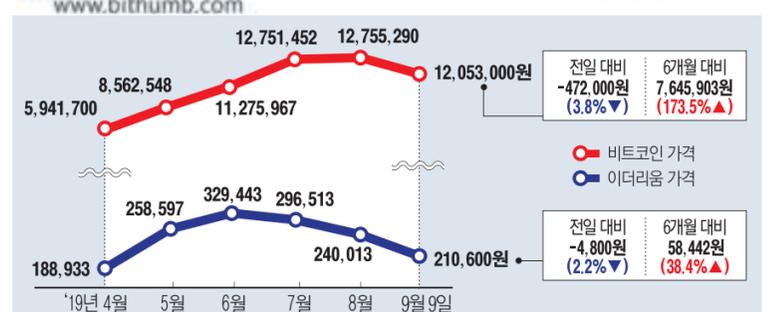
회사 측은 “당시 인수를 계획하던 회사가 있었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M&A부터 중국 매출 강화, 국내 마케팅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9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355,700	-7,500	(2.1% ▼)
리플	306	-6	(1.9% ▼)
라이트코인	81,700	-1,900	(2.3% ▼)
대시	125,000	-1,000	(0.8% ▼)
모네로	88,150	-3,150	(3.5% ▼)
비트코인골드	13,610	-500	(3.5% ▼)
이더리움클래식	7,670	-265	(3.3% ▼)
퀀텀	2,615	-95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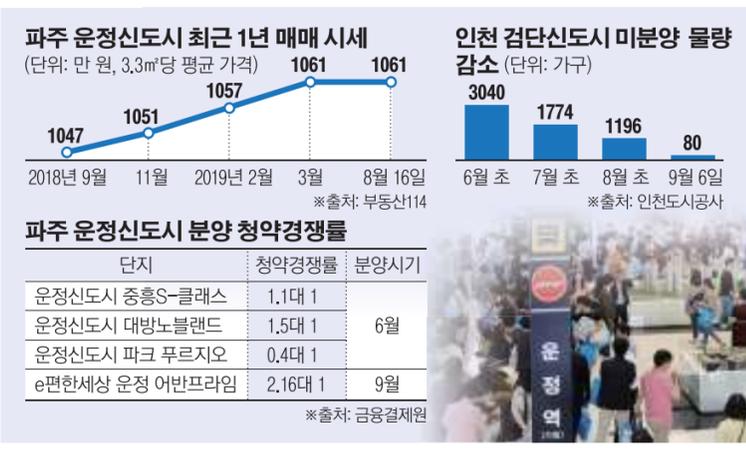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미분양 늪’ 서 살아난 파주·검단...“고맙다, 상한제”

‘3기 신도시’로 미분양 우려 컸지만 교통개선 등 호재 힘입어 수요 몰려

‘e편한세상 운영...’ 순위내 청약 마감 ‘검단 파라곤’ 3개월 만에 계약 마쳐 집값 오르고 분양권 프리미엄 형성도

정부가 5월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을 발표하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입지상 서울에 더 가깝고 기반시설도 잘 갖춰진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1·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은 볼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과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택시장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일대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체했던 주택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e편한세상 운영 어반프라임’ 아파트 청약 받은 결과 평균 2.1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청이 순위 내 마감했다. 올해 운정신도시 분양 단지 중 처음으로 순위 내 마감 단지가 나온 것이다. 2기 신도시인 이곳은 앞서 3기 신도시의 발표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며 우여곡절 끝

에 12년 만에 중흥건설·대우건설·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동시 분양을 진행했다. 입지에 따른 청약경쟁률 차이는 있지만 모두 흥행에 실패하며 장기 미분양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달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아파트(1262가구)가 100% 분양 완료했다. 대방건설의 ‘파주운정 대방

노블랜드’도 완판 대열에 합류했고 대우건설도 마지막 물량 소진에 집중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꼽혔던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완판(100% 계약) 단지도 잇따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5월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검단 파라곤’(887가구)이 분양한지 3개월여 만에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파주 운정2지구에서 내년 입주 예정인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짜리 분양권은 요즘 4억8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는 5억 원까지 형성됐다. 분양가 대비 8000만~1억 원 오른 셈이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전용 84㎡도 분양가보다 3000만원가량 비싼 4억 4060만 원에 최근 거래됐다. 이처럼 3기 신도시의 직격탄을 맞았던

파주 운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데는 교통 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막대한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리고, 결국 커트라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약 가치가 낮은 수요자들이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이들 2기 신도시로 일부 이동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여기에 늘어나는 전매제한 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공동사업시행’ 10개월 만에 등장

‘한남하이츠’ 조합, 시행자 선정 입찰...시공사 리스크 커 부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사업 주체가 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다시 등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라리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자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6일 공동사업 시행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내걸었다. 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4만8837.5㎡)에 지하6층·지상20층짜리 아파트 790가구를 짓는 것이다. 서울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 시행자 입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관악구 봉

천4-1-3구역 재개발조합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토지제공과 의사결정을 하고, 시공사는 사업비 조달과 분양을 책임진다. 그만큼 시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큰 방식이다. 조합 입장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방식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공동사업시행을 하면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정할 수 있어 대략 3~4개월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시공사와 사업승인·관리처분계획 등을 함께 진행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한남하이츠 조합은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시공사가 자금 조달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과 미분양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지만 분양 수익에 대해선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예정 가격(약 3419억 원) 이내에서만 시공사가 이익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올해 2월 봉천4-1-3구역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자가 된 GS건설도 사업 이익을 배분받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사업을 수주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경매 낙찰가율 10년 5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62.8%로 9.5%p ↓ ...업무상업시설은 21%p 폭락

서울, 소폭 오른 87.9%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낙찰가율이 20% 넘게 폭락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62.8%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3월(61.8%)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1만2000건을 돌파했던 진행 건수는 1만 1898건으로 소폭 줄었고, 이 중 4034건이 낙찰되면서 33.9%의 낙찰률(입찰 건수대

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는 경매 물건당 3.7명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2.4%p)과 토지(-1.2%p)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업무상업시설은 21.4%포인트 폭락하면서 44.3%까지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서울과 대전의 낙찰가율은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87.9%를 기록했고, 대전은 7%포인트 오른 70.4%로 집계됐다. 두 지역 모두 토지 낙찰가가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생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안을 알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안이자, 후속한 성장형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안과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에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라든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0쪽 / 국문판형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운 불행,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00원 / 215,800원

# ‘외나무다리’ 올라선 조국 vs 검찰

### 靑 장관 “검찰개혁 완수”... 檢, 가족 의혹 수사 강드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날 오후 4시 반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진행됐다.

정부와 여권 등은 조 장관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아왔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경찰이 일차적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 완결 지원과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전격 압수수색에 이어 주변인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희근)는 6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급박하게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관련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대법 “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범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징역 3년 6개월 원심 확정



유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에 대해 살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호텔 등지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폭행 범행이 있고 난 이후 김 씨의 행동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 “열린 공동체 사회 만들 것”



이정옥 (사진·64)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취임했다.

이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에서 “저의 경계 넘기의 경험이 여성가족부의 성격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상호간에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열린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돌봄이 존중받고 다양한 가족들이 어울리는 포용사회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힘 쏟겠다고 역설했다.

김소희 기자 ksh@



일본산 가리비가 국산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 등 압수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확정

### 인증 담당 직원은 집행유예 BMW 등 유사소송 영향 미칠 듯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관련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천 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기준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6245억

원 상당)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했다”며 벌금 28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량에 대한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아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시점을 나중에 인지하고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무죄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이 옳다고 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벤츠코리아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수입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장효진 기자 js62@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재미

공감

행복

## BRAVO My Life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 엔진이 앞바퀴 '끌고' 전기모터가 뒷바퀴 '밀고'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사륜구동 하이브리드 등장

2010년대 들어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이 더는 새 엔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개발해 놓은 엔진의 배기량을 바꾸거나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디젤 엔진이 막바지까지 친환경 기술을 포개가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났을 뿐이다. 엔진 자체는 이전과 다를 게 없다는 뜻이다. 곧 등장할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수천억 원을 들여 새 엔진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친환경차의 궁극점인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과도기를 책임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도 정점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초 렉서스 RX가 네바퀴굴림 하이브리드를 첫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엔진으로 앞바퀴를 굴리고, 전기모터가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이다. 사진제공 뉴스프레스UK

최근 하이브리드는 단순하게 엔진과 전기가 맞물린 구조를 벗어나는 중이다.

엔진과 전기모터가 각각 다른 바퀴를 구동하는, 네바퀴굴림 하이브리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이들은 엔진이 앞바퀴(또는 뒷바퀴)를 굴리고 전기모터가 나머지 바퀴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네바퀴굴림 하이브리드는 험로를 달리기 위한 목적보다 빗길과 눈길 등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뽑아내는 효과가 더 크다.



### 글로벌 톱10 하이브리드 AWD

모델	시스템 출력(hp)	연비(mpg)	가격(달러)	비고	모델	시스템 출력(hp)	연비(mpg)	가격(달러)	비고
토요타 프리우스 AWD-e	121	50	2만7310	HEV	어큐라 RXH	377	28	6만2895	HEV
스바루 크로스 트랙	137	35	3만5970	PHEV	메르세데스-AMG E 53 4매틱 플러스	450	24	7만3545	HEV
볼보 S80 e-AWD	415	31	5만6040	PHEV	렉서스 LS500h AWD	354	26	8만4055	HEV
BMW 503e x드라이브	248	28	5만6695	PHEV	BMW 745e x드라이브	389	22	9만6545	PHEV
아우디 A6	335	25	5만9895	마일드-HEV	포르쉐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	457	23	10만4150	PHEV

※ HEV: 하이브리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혼다 어큐라, 앞바퀴에 하나·뒷바퀴 두 개 전기모터 적용 눈길 눈길 등 노면 상황 맞춰 최적 구동력... 국산차, 연비 초점 개발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3사 역시 이전 하이브리드의 구동력을 바탕으로 속속 AWD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다.

일찌감치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한 일본은 다양한 방식의 네바퀴굴림 시스템을 양산차에 선보이고 있다. 혼다의 고급차 브랜드 어큐라는 3개의 전기모터를 쓴 하이브리드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앞바퀴에 모터 하나, 나머지 모터 2개는 뒷바퀴에 하나씩 심었다. 이렇게 네바퀴굴림을 만들어냈는데 양쪽 뒷바퀴가 전

기모터를 통해 최적의 구동력을 뽑아낸다.

반면 아직 국산차는 엔진과 전기모터의 단순 결합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굴림방식을 개발해 주행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연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탓에 당분간 굴림방식이 다양한 국산 하이브리드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이브리드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근 고급차 브랜드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사진은 벤츨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콘셉트 모습. 사진제공 뉴스프레스UK

## 타보니 현대자동차 쏘나타 HEV

### 지붕에 태양광 패널 '달리는 발전소'

솔라루프 시스템, 세워두면 알아서 충전  
리터당 20km 연비... 부드러운 변속감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달리는 발전소'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갖췄다. 얼핏 보면 평범한 지붕이지만 자세히 보면 솔라 패널이 깔려 있다. 태양광이 패널 내 전지에 들어오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전기가 주행용·시동용 배터리에 동시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시승하는 내내 구름이 많고 비도 내렸다. 솔라루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의문이 있었지만, 하루를 세워 놓자 충전이 됐다.

외관은 일반 쏘나타 2.0 모델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휠과 캐스캐이딩 그릴 정도가 차이점이다. 스포티한 외관과 실내 디자인, 편의사양도 그대로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용하다. 다른 하이브리드차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이 소리마저 거의 나지 않는다. 골목을 주행할 때 보행자들이 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애먹는 일이 반복될 정도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스마트스트림 G2.0 GDi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152마력(PS), 최대토크 19.2(kgf·m)의 힘을 낸다. 연비는 리터당 20.1km다.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 연비가 표시된다. 처음엔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지만 점차 연비를 계속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

다. 이틀간 시내와 교외를 오가며 몰아 봐도 리터당 19~20km의 연비가 유지된다.

이 차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 변속 제어 기술(ASC)을 갖췄다. ASC는 하이브리드 모터로 자동변속기를 초당 500회씩 조정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하이브리드차보다 30% 빠른 변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변속감이 부드럽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급가속을 해도 무난히 속도를 낸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저공해 2종 자동차로 분류돼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된다. 서울 도심 울지로 노상 주차장에 3시간 넘게 주차를 했는데 주차비는 500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면 주차비 부담에 차를 두고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판매가격은 △스마트 2754만 원 △프리미엄 2961만 원 △프리미엄 패밀리 3130만 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3330만 원 △인스퍼레이션 3599만 원이다. 기술력 2.0 모델보다 400만 원 정도 값이 더 나간다. 유창욱 기자 woogi@

## 타보니 기아자동차 니로 HEV



### 공간·파워·연비까지 빠지는 게 하나 없네

넉넉한 레그룸 덕에 체감공간 커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신규 탑재

기아자동차 니로가 "SUV(스포츠퉈리티차량)냐 아니냐"는 논란은 잊기로 했다. 2016년 출시 이후 고만고만한 SUV가 꽤 늘면서 자연스럽게 논란은 사라졌다.

니로는 2016년 3월 말 출시된 국내 첫 하이브리드 스포츠퉈리티차량(SUV)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봄 서울모터쇼를 앞두고 등장한 연식변경 모델은 여기에 한결 명민해졌다는 평가다. 특징 없이 밋밋했던 디자인을 소폭 다듬었는데 꽤 효과를 냈다.

실내 체감 공간은 꽤 넉넉하다. 넉넉한 레그룸 덕이다. 대형 세단이라도 다리 공간이 비좁으면 심리적 답답함이 커진다. 거꾸로 차 공간이 좁아도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체감 공간이 커진다. 니로는 후자다.

운전석에 앉아 보면 니로의 '광고 문구'였던 '스마트 SUV'라는 수식어를 체감한다. 계기판 전체를 뽑아내고 7인치 풀 LCD 클러스터를 새로 심었다. 내비게이션 화면도 10.25인치로 넓혀졌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차선유지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정차&재출발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올봄부터 새로 달았다. 여기에 △전

방충돌방지보조 △차로이탈방지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기능도 기본이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이 모든 기능이 하나둘 계기판에 속속 등장한다. 운전대에 손만 얹으면 모든 건 니로가 알아서 한다.

직렬 4기통 1.6리터 자연흡기 직분사 엔진은 최고출력 105마력을 낸다. 엔진 출력축과 맞물린 전기모터가 43.5마력을 보낸다. 전체 시스템 출력이 141마력에 달해, 웬만한 2.0 중형차와 맞먹는 수준이다.

체감출력도 이런 수치를 앞선다. 내연기관은 출발하면서 점진적으로 회전을 보낸다. 반면 전기모터는 출발과 함께 곧장 최대 회전수까지 직행한다. 말 그대로 스위치 온(On)과 함께 최대토크를 단박에 뽑아내는 식이다.

넉넉한 공간에 다양한 첨단 기능을 얹은 니로는 1리터에 20km를 훌쩍 넘는 연비를 갖췄으며 모자람 없는 주행 성능까지 지녔다.

그 덕에 지난해 기준, 전체 하이브리드 가운데 그랜저IG에 이어 판매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품성이 그만큼 뒷받침됐다는 뜻. 잘 팔린 차에는 그만큼 유가 충분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혁신금융을 어시스트하다

꿈을 가진 벤처 창업자들이  
혁신을 드리블하고 한계를 넘어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길 바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지원 사업으로  
함께 꿈을 키우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 혁신금융협의회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출범

### 혁신금융 30조원 지원

2021년까지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 대상 30조 지원 예정

### 하나벤처스 설립

국내 최초 신기술 금융사 설립 및 1천억 펀드 조성

# “유해 게시물, AI·사용자 신고 통해 걸러낼 것”

##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공공정책 총괄, 업데이트 설명회

### 자체 머신러닝 기술 활용해 가짜 정보·음란물 유포 막고 신고 들어오면 가이드라인 위반했는지 검토해 삭제 결정

인스타그램이 가짜 정보나 음란물 유포 등을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걸러낸다.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공공정책 총괄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미디어 업데이트 세션을 열고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스타그램의 정책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정책 팀을 이끌며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 의회에서 일했으며 수석 고문과 뉴미디어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카리나 뉴튼 총괄은 “이달부터 새로운 옵션을 출시해 사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거짓정보라고 판단하면 콘텐츠를 신고하고, 이러한 피드백을 이용해 사실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스타그램 내 거짓 정보와 허위정보, 유해 게시물 등을 차단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유해 콘텐츠를 찾아 자동으로 신고하고 리뷰팀이 게시물을 리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샘플 콘텐츠를 이용한 지속적인 인공지능 기술 트레이닝을 통해 테러와 스팸, 혐오 게시물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을 찾는다. 가이드라인 위반 판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찾지 못한 유해 게시물은 사용자가 직접 신고해 삭제하게 된다. 게시물을 확인한 사용자는 직접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신고가 접수돼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 이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된 게시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 단 한 건의 신고로도 게시물이 삭제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공공정책 총괄이 9일 미디어 세션을 통해 새로워진 ‘신고하기’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한 콘텐츠와 관련한 정책도 변경했다. 인스타그램은 지금까지 자살·자해 콘텐츠 게시물 공유를 통해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영향에 게시물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오히려 자살·자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책을 변경했다.

카리나 뉴튼 총괄은 “신고가 들어오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위반인지 결정하고 이후 주요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실세계에서도 위협할 수 있는 게시물은 우선검토 순위가 부여되며 해당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기아차 동평위에다가야 총경리 ‘첫 현직인 CEO’로 리펑 임명

기아자동차는 9일 중국 현지법인 ‘동평위에다가야’ 총경리에 리펑(李峰·56·사진) 전 바오닝(寶能)그룹 부총경리를 임명했다. 기아차가 중국에서 현지인을 법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리펑 총경리는 2009~2013년 베이징현대 부총경리로 근무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리펑 총경리는 중국 내 생산과 판매,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운동섭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장 취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운동섭 병원장이 최근 강남구 의료관광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남구의료관광협회는 의료관광 발전과 유관단체간 협력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김슬지 슬지제빵소 대표 선정

젊은 층을 겨냥한 썬빵을 개발한 청년농업인 김슬지 슬지제빵소 대표가 9월 ‘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



2015년 전북 부안군에서 슬지제빵소를 연 김 대표는 ‘2대(代)가 함께하는 바른 먹거리 기업’을 목표로 젊은 층도 즐길 수 있는 간식 개발에 주력했다. 그는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해 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 오색 썬빵, 크림치즈 썬빵 등을 개발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서형준 마스터·이기철 공장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서형준(왼쪽 사진) 삼성전자 마스터와 이기철(오른쪽) 익성산업 공장장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서 마스터는 바람 없이 실내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무풍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공로를,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이 공장장은 자동차음을 줄이는 초극세사 흡음재를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고 생산 설비를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인쇄문화의 날 맞아 유공자 표창 배명수 한성칼라 대표 ‘문화훈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1회 인쇄문화의 날(9월 14일)’을 맞아 배명수(배) 한성칼라 대표이사등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을 문화훈장·표창 수훈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훈장을 받은 배 대표는 인쇄 품질 고급화와 인쇄물 수출 증대에 앞장서며 청년, 고령자,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소희 기자 ksh@

# 아모레퍼시픽, 창립 74주년 맞아 임직원 나눔 활동

## 국내·해외법인 700여명 참가

아모레퍼시픽이 6일 창립 74주년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8개 해외 법인의 임직원 총 700여 명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임직원들이 착한 나눔에 동참하는 날인 ‘AMORE Beautiful Day’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각 지역의 기관과 지역사회 청소년, 대학생들이 함께



창립 74주년 맞아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

참여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기획했다.

이날 본사와 지역 사업부에서는 ‘미스터리 나눔버스’를 타고 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미스터리 나눔버

스’란 사전에 누구와 어떤 봉사 활동을 하게 될지 공유받지 않은 채 참가자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의 버스에 탑승해 봉사처로 이동하는 버스다.

서울 용산의 본사 임직원들은 4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물건의 재사용 나눔’, ‘송편 제작 나눔’, ‘캐릭터 도시락 나눔’, ‘어린 가정방문 나눔’에 참여했다. 아름다운가게 숙명여대점과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숙명여대 한국음식교육원, 해심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용산구에 위치한 이주여성, 아동, 독거 노인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대한항공, 베트남 낙후지역 학생에 자전거 100대 선물

### 지난해부터 총 260대 기증

대한항공이 베트남 낙후지역 학생들을 위해 ‘희망자전거’를 선물했다.

대한항공은 7일 베트남 팜남성 소재 쩌위투 초등학교 학생 40명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선물하는 ‘희망의 자전거’ 기증 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이 지난해부터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의 자전거 기증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에 힘쓰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쨌위투 초등학교는 주변의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 자전거가 없는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이에 대한항공은 팜남성 교육청과 학교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는 40명의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게 된 것. 학생들의 학업과 체육활동에 도움이 될 책가방 60개와 축구공 40개도 함께 기증했다.

대한항공은 12일에도 베트남 벤째성 소재 빈칸 중학교를 찾아 자전거 60대를 기



7일 베트남 팜남성 쨌위투 초등학교에서 열린 ‘희망의 자전거’ 기증 행사 후 대한항공 관계자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기증한 자전거 대수는 260대에 이르게 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곤 몰아낸 사이카와도...

### 닛산 사장 ‘불명예 퇴진’

#### 실적 부진에 부당 보수 들통나

일본 닛산자동차에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사이카와 히로토(사진)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자신 역시 부



당하게 거액의 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나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사이카와 사장이 자신의 퇴임 의사를 일부 닛산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적 부진과 자신의 보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책임론이 강해져 더는 연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전했다. 닛산과의 동맹인 프랑스 르노의 장 도미니크 세나르 회장 등이 참여한 닛산 지명위원회는 이미 7월부터 사이카와 후임을 간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이카와 사장은 이날 밤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문제와 관련해 부정할 일을 저지른 적은 없다”며 “이 일로 사임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곤 전 회장 문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지명위원회 준비를 통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정무실장 김창덕 ◇과장급 △국회협력행정관 오성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산업과장 정은수
- ◆한국환경공단 ◇임용(별정직 이사대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진병복
- ◆메트라이프생명 ◇상무 선임 △최고 마케팅책임자(CMO) 전원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정

- 책본부장 신현욱 △총무국장 김동진 △연수운영국장 김효섭 △정책교섭국장 장승혁 △교원복지본부장 김동석 △조직강화국장 이서구 △회원사업국장 김영춘 △교원복지국장 정해숙 △교원연구국장 이호중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박충서 △편집국장 이낙진
-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정치부 부장대우 이석중(승진)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장직무대리 겸 온라인뉴스팀장 성희제(전보)
- ◆아주경제 △경제부장(부국장) 김병수

## 부음

- ▲정총화(전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씨 별세, 정경숙·계숙·대연·원연(오가니버튼(주)대표) 씨 부친상, 정해진 씨 장인상, 이연수 씨 시부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3410-6901
- ▲유형간 씨 별세, 유종인(행정안전부 차관) 씨 장모상 =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1일 오전 5시, 02-2072-2010

- ▲김해동(전 외환은행 지점장) 씨 별세, 김성은(삼성전자 상무)·재은(드라마작가) 씨 부친상, 천승희(중앙회계사무소 대표) 씨 장인상, 하승희(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씨 시부상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31-787-1503
- ▲남태현 씨 별세, 이진원(프로농구 서울 삼성,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단장) 씨 장인상 = 8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1일 오전, 042-280-8181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잃어버리는 시대, 'D'의 함정 빠지나

<디플레이션>

디플레 조짐이 뚜렷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시스템이 무력해지는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생산과 투자도 감퇴한다. 디플레는 또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수반한다. 'L'(lay-off)의 공포다. 정부 정책 또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힌다.

'R'(recession-경기침체)을 넘어 'D'(deflation)의 공포다. 글로벌 경기가 후퇴하고, 국내 경제성장률 추락이 맞물려 이미 침체는 깊어지고 있다. 산업·금융·고용 등의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다.

가장 잘나갔던 미국 경제부터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른다.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돈이다. 미국 단기물(2년 만기) 금리가 장기물(10년)보다 높아지는 역전(逆轉) 현상이 빈번하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불황이 예상되면 돈은 금리와 달리 가치 하락에 베풀린다. 장기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지는 비정상 발생 이유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6차례의 경기침체 이전 모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3.1%였으나 2분기는 2.0%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의 상태는 훨씬 암울하다. 격화일로에 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된 곳이 한국이다. 일본의 공격은 앞선 데 덮친 격이다. 우리 산업 전

반을 겨냥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의 한국 배제로 양국은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홍콩 사태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우려, 신중국 금융위기 등이 다발적으로 몰려와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자유 무역의 세계 질서가 깨지면서 '너 죽고 나 살기'식 각자도생(各自鬻生)이 지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너지는 상황은 수출 의존형 개방경제 구조인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한국은행)은 전기 대비 1.0%에 그쳤다. 이마저도 1분기 -0.4%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에서 민간은 -0.2%p, 정부가 1.2%p였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민간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가. 정부 목표인 2.4~2.5% 성장은 어렵고, 한은 전망치 2.2%도 물 건넨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은행(IB) 상당수는 1%대 추락을 점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 하락이

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이 전년 동월 대비 -0.04%를 기록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 개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이너스 물가다. 올해 연간 상승률도 0.5%에 미달할 전망이다. 이 또한 역대 최저다.

디플레 조짐이 뚜렷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시스템이 무력해지는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생산과 투자도 감퇴한다. 디플레는 또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수반한다. 'L'(lay-off)의 공포다. 정부 정책 또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힌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위기설'만 나와도 팔짝 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펀더멘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부터 경제불안이 커지고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걸 시장은 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 하락이 이어질 때를 디플레로 본다. 그런 점에서 디플레 논쟁은 성급하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가 막혔다는 데 있다. 대외여건 악화 탓만이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추락하는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뤘던 성장 패러다임의 부정이었다. 포퓰리즘에 기댄 감성적 복지와 선부론 분배 이념의 탓에 걸려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경제의 뿌리부터 굵아들게 하는 '한국병(韓國病)'이다. 정부는 이곳저곳 세금 퍼붓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 오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무성하지만, 전략은 허술하고 실행능력이 의문이다. 반(反)기업의 온갖 노동·환경·안전 규제 등이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을 이 땅에서 버티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잃어버리는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디플레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unny56@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혁신 성공의 제1 요소 '단순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없이 '단순함(simplicity)'이라 하겠다. 우리가 벤처라는 관념과 가장 연관시키는 것은 바로 '혁신'이라는 단어이다. 혁신의 큰 축은 기존의 모양, 사용, 인지, 구현 방식과 다름이고, 또 다른 큰 축은 그 다름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value)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혁신 모델들을 보면 '다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다름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혁신의 성공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자보다 후자에 달려 있으며, 시장이 벤처가 제시하는 혁신의 가치를 얼마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냐는 것이다.

실제 벤처의 실패는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needs)를 잘못 읽거나 벤처가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혁신의 경우에도 결국 절반의 성공도 못 이루어내고 사그러지는 모델도 많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 가치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가치는 있으나 받아들이는 과정에 너무 많은 위험을 인지하여 나타난 결과들이다.

어떠한 혁신도 소비자에게는 위험을 수반한다. 써보지 않은 새 상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 그로 인한 시간적 노력의 손해는 없었는지, 결국 안 쓰게 되면 자금의 낭비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사용 결과가 나쁘거나 어려우면 어느 정도 소비자는 자신이 잘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비자의 자아 능력적 부분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의 자아에 상

처를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는 벤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기술로 구현되는지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즉 소비자의 혁신 평가는 처음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단순함에 좌우된다. 여기에는 중요한 상호 작용도 있는데, 즉 소비자는 시각적으로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시각적으로 단순한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시각적으로 단순한 모델은 내가 쓸 수 있고, 나의 사용 능력 범위 안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더불어 사용의 단순함은 새 방식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지적 투자를 줄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술이 날로 복잡해지고, 대체제도 충분하고, 비슷한 선택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집중이 분산되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단순함은 현대인이 갈구하는 인생의 요소와도 부합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 신뢰하고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다. 단순함이 주는 편안함과 질서, 접근성, 효율성의 모든 요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벤처 모델을 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5분 내에 확신을 시키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그리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투자자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확신을 시키지 못하는 모델은, 훨씬 더 소음이 많고 쪼개진 시간을 주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는 단순함은 단지 기능과 디자인의 요소를 더하지 않아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명인 "도덕이 안에 가득하면 문장으로 저절로 환하게 드러난다."

여말선초의 문신·학자. 삼은(三隱)의 한 사람. 원(元)나라와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고, 명(明) 태조도 그가 지은 표(表)를 보고 찬탄하였으며 중국의 사대부들도 그의 저술을 보고 탄복하였다는 문장가.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347~1392.

☆ 고사성어 / 무불경(毋不敬) 공경스럽지 아니함이 없음. 예기(禮記)의 중심이 되는 말이라고 정자(程子)가 말했다. "곡례에 이르기를 '사람이 몸을 수양 함에는 언제나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고, 용모는 늘 도의를 생각하는 것같이 엄숙해야 하며, 말은 부드럽고 명확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덕이 절로 쌓아져서,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라.'" [曲禮曰毋不敬 儆若思 安定辭 安民哉]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이 원전.

☆ 시사상식 /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자가 직업을 탐색하거나 바꾸는 직업의 이동에서 고용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고용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과 이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확충, 고용차별 해소 등을 통해 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우리말 유래 / 불현듯 갑자기, 견잡을 수 없게, 느닷없이란 뜻. '허다'는 '켜다'의 옛말. 불을 켜면 갑자기 환해지듯이 어떤 일이나 생각이 느닷없이 이루어질 때 쓴다.

☆ 유머 / 과장 선전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워낙 공기가 좋아 최근 5년 동안 죽은 사람이라고는 의사 한 명밖에 없다'라고 휴양지를 자랑했다. 관광객들이 모두 건강한데 왜 의사만 병에 걸렸을까 궁금해하자 보충 설명했다. "워낙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지 뭐니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중화 정치경제부/pbell@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일본이 '덩치에 안 맞게 개도국 혜택을 누리려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자국의 경제 보복을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리하게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려 들면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 잃게 된다.

지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농업

관세·보조금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기 농업 협상까지 기존 혜택을 누리면서 연착륙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시급한 건 농업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이다.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변동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변동 직불금 예산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농가의 소득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넓혀야 한다.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외풍에 대한 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피할 수 없는 짐이라면 그 무게를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차선이다. 명분을 잃으면 실리도 챙길 수 없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매혹적인 오답’에 경제가 휘청인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료, 선배들을 업무 능력과 인성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몇 그룹으로 그들을 나눈다.

사회생활에 특이해지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리 짓기’를 통해 본인의 가치를 평가받길 원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유능한 동료와 무능한 동료, 능력은 있지만 게으른 동료, 인품이 훌륭한 선배와 독불장군 선배, 스펀지처럼 업무습득 능력이 빠른 후배와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까먹는 후배 등 직장인의 군상은 각양각색이다.

이 중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하기 위험한 부류가 있다. 본인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강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조직 내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능동적으로 갈라치기에 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조직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인의 성과가 왜 낮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 자신을 인정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을 포섭하기에 여념이 없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 특성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성하지 않으니 사과할 일이 없다. 본인 탓이 아니라 외부환경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고개 숙일 일이 없다. 당연히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직의 미래에 대해 본인만의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 데스크칼럼

박성호  
산업부장



본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서 전체 조직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독특한 장기성장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얼핏 들으면 ‘장밋빛 청사진’ 내용이 많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자신이 정해놓은 비전을 성경처럼 믿고 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악마’ 또는 ‘악당’으로 간주돼 인신공격 대상이 된다.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매혹적인 오답’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의·평등·공정 등을 앞세웠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신념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쓴소리다.

경제·정치·안보 등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동시에 모순적인 정책 추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체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 기술을 수출해 활로를 찾겠다.”(정부) “자기는 위험해 못 먹겠다는 빵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다.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원전업계 관계자)

“미국이 연장을 원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신뢰하기 힘들어진 일본에 대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정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 전방 부대를 한번 돌아봐라. 전쟁 나면 소총 대신 스마트폰 먼저 쟁길 병사들이 많을 거란 농담은 농담이 아니다.”(군 간부)

“경제성장이나 둔화하고 있는 것은 (펀더멘털이 튼튼함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원인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겠다.”(정부) “미국 경제가 활황에 있을 때조차 한국의 성장률은 부진했다. 그때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불황을 탓했다. 남 탓하기 수준이 금메달 감이다.”(재계 관계자)

정부의 목소리와 현장의 체감도가 동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지지세력의 응원에 기댄 채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재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론 취회-반성-사과-책임-정책의 변화’라는 국정 선순환의 고리가 멈춘 셈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임상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에 따르면 모성(母性) 원리는 ‘우리 아이는 모두 좋은 아이’로 본다. 하지만 부성(父性) 원리는 ‘좋은 아이만이 우리 아이’라고 구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인재 등용의 원칙에 ‘부성 원리’를 적용하길 간절히 기대한다. 진보진영에 있는 우리 사람이 모두 좋은 인재가 아니다.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진정한 문 대통령의 사람이다.

vicman1203@

## 한국지엠 노조 전면파업, 자멸의 길로 가나

### 사설

한국지엠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파업은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노조는 한국지엠 소속 조합원 8000여 명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의 전면파업은 2002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이 회사의 전신인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파업으로 1만 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 통상임금 250%(약 1023만 원)의 성과급과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손실액이 4조 451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르스룩이 짝이 없다. 한국지엠은 적자 누적으로 작년 2월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사업장 철수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을 통한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부도 위기를 넘겼다. 공적자금은 국민 세금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사업장 10년 이상 유지, 신차 2종 생산을 약속해 국내 공장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이 경쟁력을 높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판매량 감소로 공장가동률이 계속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 노조가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최근 GM본사는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누적되면 한국에 배정된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로 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 경우 한국지엠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GM은 작년 11월 북미공장 5곳을 폐쇄키로 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언제 또다시 한국철수론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지금 국내 경제상황은 최악이고, 특히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차원의 수요 감퇴에 직면하고 있다. 강경투쟁 일변도로 해마다 습관성 파업을 일삼아왔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분규 없이 타결했다.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산업 전체의 위기에서 노사 공멸을 막기 위한 대승적 합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생산량 감소로 이미 부산공장 직원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노조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회사의 장기생존을 위한 경영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노사양측이 고통을 분담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 및 판매력 강화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은 경영난만 더욱 가중하고, GM이 한국 생산물량을 축소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일터마저 잃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 존슨 영국 총리는 ‘현실판 조커’?

것을 축하하고자 와이어를 타고 활강 도중 공중에서 멈춰 버려 외국 언론이 ‘광대와 같은 응원단장’으로 주목했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노골적인 묘사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언론 매체들의 편견에 가득 찬 인신공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릿광대 조커처럼 존슨 총리도 그간 약당의 면모를 과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는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다.

조커가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기만한 것처럼, 존슨도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영국이 매주 EU에 3억5000만 파운드(약 5100억 원)의 분담금을 낸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문구를 버스에 걸어 전국을 활보하게 했다. 이는 믿기 어려운 브렉시트파의 국민투표 승리로 이어졌다.

7월 보수당 대표를 뽑는 마지막 선거구 세에서는 비닐 포장된 훈제정어를 꺼내들며 “EU가 훈제정어를 판매할 때마다 플라스틱 냉장용 아이스팩을 써야 한다는 규제를 가해 판매자가 수십 년간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또한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 EU는 가공 생선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존슨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테리사 메이는 EU와의 협상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든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존슨은 최소한 합리적인 논리에 기대 브렉시트에 임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최악의 결과인 ‘노 딜 브렉시트’ 차단에 나서자 합리적인 논리와 계획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극단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의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일삼으니 ‘어릿광대’라는 비웃음을 받는 것이다. 지금 영국은 광대의 공연을 볼 만큼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baejh94@



## 간담회(懇談會)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었지만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예기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다른 피해는 전혀 주지 말고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던 거짓과 모함과 억지와 불신의 분위기만 확 다 쓸어가기 바랐는데 그런 분위기는 쓸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만 냈다. 하기가 아무리 힘이 센 태풍인들 인간이 만들어낸 못된 분위기를 쓸어가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태풍을 탓할 일은 아니다.

간담회는 ‘懇談會’라고 쓰며 각 글자는 ‘정성 간, 간절할 간’, ‘말씀 담’, ‘모임 회’이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주고받는 모임’이다. 국어사전은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懇’은 ‘豕+艮+心’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豕’는 흔히 ‘벌레 치’라고 혼동하는데 이 글자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찮은 사람’,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띤다. ‘豕(돼지 시)’의 변형으로 보아 부수

로서의 ‘豕’는 ‘갖은 돼지시 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艮(어긋난 간, 그칠 간)’은 ‘懇’의 발음을 맡은 글자로서 ‘사람(人)이 눈(目)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내리깔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다. 주눅이 들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시야가 자신의 발아래에 그쳐 있는 사람의 형상이다. 여기서 ‘그치다’라는 뜻이 생겼다. 따라서 ‘豕(간)’은 벌레나 돼지 같은 대우를 받는 천한 사람이 상전 앞에서 눈길도 멀리 보낼 수 없는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상전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자인데 후에 ‘心’을 덧붙여 그런 마음을 더욱 강조한 글자가 바로 ‘懇’이다.

간담회는 일본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담회(精談會)’라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졌던 기자간담회는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부합하는 ‘간담회’나 ‘정담회’였을까? 정이 있기는커녕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눈부신 변화의 끝에서  
스케일과 디테일의 완벽한 공존



Dignity & Intelligence  
THE **K9**



The Power to Surprise



빛나는 디테일을 더한 크롬가니쉬



세련된 감성의 스포티 컬렉션



더편해진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9 V6 램다 II 3.8 GDI 2WD (192마력 타이에) 자동 8단 : 복합연비 8.0km/l (도시연비 : 7.8km/l / 고속도로연비 : 11.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15kg | 복합 CO<sub>2</sub> 배출량 192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3.8 GDI AWD (192마력 타이에) 자동 8단 : 복합연비 8.4km/l (도시연비 : 7.3km/l / 고속도로연비 : 10.3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85kg | 복합 CO<sub>2</sub> 배출량 204g/km - 5등급  
\* K9 V6 램다 II 3.3 T-GDI 2WD (192마력 타이에) 자동 8단 : 복합연비 8.7km/l (도시연비 : 7.4km/l / 고속도로연비 : 10.9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15kg | 복합 CO<sub>2</sub> 배출량 199g/km - 5등급  
\* K9 V8 티우 5.0 GDI AWD (192마력 타이에) 자동 8단 : 복합연비 7.5km/l (도시연비 : 6.4km/l / 고속도로연비 : 9.5km/l) | 배기량 5,038cc | 공차중량 2,165kg | 복합 CO<sub>2</sub> 배출량 231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AUTO**  
안전운행을 위한  
자랑 Care Service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센터